

13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73.64 (-1.18)	722.80 (-6.69)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570 (+0.020)	1455.10 (+4.10)

metro® 경제



식음료 모르는 K-라면 인기 2월 수출액 1750억 '신기록'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 20% 육박 작년 농식품 수출 1위 품목 차지 업계, 해외 생산·유통 확대 박차 美 시장 트럼프 관세 위협 변수



농심 신라면 차량이 미국 시내를 누비고 있다. /농심

라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 2월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월간 1억2000만 달러(약 1749억원)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업계는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확대는 물론,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2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라면 수출액은 1억2115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9290만 달러) 대비 30.4% 증가한 수치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2억2864만 달러로 전년 동기(1억7865만 달러) 대비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량도 5만7190t으로 30.2% 늘어나며 글로벌 시장에서 K-라면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다.

라면은 지난해 한국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K-콘텐츠의 인기와 힘입어 K-라면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으며, 간편식을 선호하는 트렌드와 맞물려 수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이 20%에 이를 정도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주요 라면업체들은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생산 및 유통망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심은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이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농심 유럽' 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녹산에 수출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5년 하반기 본격 가동 시 연간 27억 개의 제품을 해외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수출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출 비중이 2023년 68%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77%로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도 20%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12%와 비교해서 크게 성장

한 모양새다. 농심의 영업이익률은 전년(6.2%) 대비 하락한 4.7%로 집계됐다. 다만 매출 측면에서는 농심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3조4387억원을 기록하며 굳건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삼양식품은 같은 기간 1조7300억원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은 오는 6월 밀양 2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뚜기는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 상호를 'OTT OGI'에서 'OTOKI'로 변경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 제품인 '진라면'의 글로벌 모델로 방탄소년단(BTS) 진을 발탁해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소송·투기자본공격 우려에도 상법 개정안, 野 주도 국회 통과

경제계, 가결 소식에 “깊은 유감” “경영전념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

각종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 공격 가능성 확대, 기업이 정신 위축 등을 이유로 경제계가 강력 반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인 이사의 총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가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국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총 투표수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본회의 법안 반대 토론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라고 반박했다.

경제계는 이날 상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소식에 일제히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관련 논평에서 “이사 총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해 기업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까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해외 주요국도 이사 총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한경협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 총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험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6면에 계속>

/김승호·허정운·박태홍 기자 bada@

“통화정책, 경기 회복에 초첨… 가계빚·집값 유의”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美中 갈등에 환율 변동성 확대

한국은행이 당분간 물가 안정 속에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춘 통화정책을 운영할 전망이다. 한은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달러화 대비 원화 등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4면>

한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의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고, 올해 2월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당시 3.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연 2.75%다.

한은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가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에서 2월 2.0%로 떨어졌다. 목표치(2%)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앞으로 경기회복에 무게를 두고 금리인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였던 1.9%보다 0.4%p 낮은 1.5%로 전망했다. 내수(소비·투자)회복이 더뎠고, 수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

이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발 관세정책까지 더해지면 수출은 크게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한은은 금리가 3.2% 이하로 떨어지면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성한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리인하 기초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여타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경계감이 여전히 강한 만큼 관련 불확실성 요인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

메트로 한줄뉴스



▲ 최상목 “트럼프 관세에 캐·맥 전략 안돼”… 보복 선택지 배제
▲ 권성동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사진 뉴시스

▲ 현재, 검사 탄핵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환영… 野 탄핵 남발에 경중”

▲ 민주 “명태균·김영선도 구속취소 청구… 범죄자들 다 풀어줄 것인가”
▲ 이재명, 3선 의원들과 간담회… “내부 단결·통합 모습 보여야”

‘노하우 탈취’ 의혹 대한전선, LS 지분 확보 ‘경영개입’ 논란

가운건축사무소, LS 공장설계 이어 대한전선 당진공장 건설에도 참여 경찰, 대한전선 압수수색 결과 이목 LS전선 “전선 공장 6곳 외형 달라 우리공장과 대한전선 매우 비슷”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반그룹에서 LS지분 매입 ‘전략적 움직임’ 해석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HVDC(초고압직류송전) 전용 공장(왼쪽)과 충남 당진시 위치한 대한전선 HVDC 공장 전경. /각사



국내 케이블업계 1위 LS전선과 2위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유출’ 의혹을 두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LS전선은 기술 탈취가 사실로 밝혀지면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최근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이 ‘LS’ 지분확보에 나서면서 경영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대한전선 서울 양재동 사무실과 대한전선 충남 당진공장,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장거리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기술과 관련된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담긴 레이어아웃을 부정하게 입수했다는 의혹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LS전선이 강원 동해에 지은 1~4공장 설계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지난 2022년 대한전선이 충남 당진 1공장을 건설하는 데도 참여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당진 1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술유출을 주도했다는 입장이다.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연락해 설계를 맡아달라고 설득했고, 계약금도 LS전선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VDC 케이블은 설비 및 공장의 배치가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LS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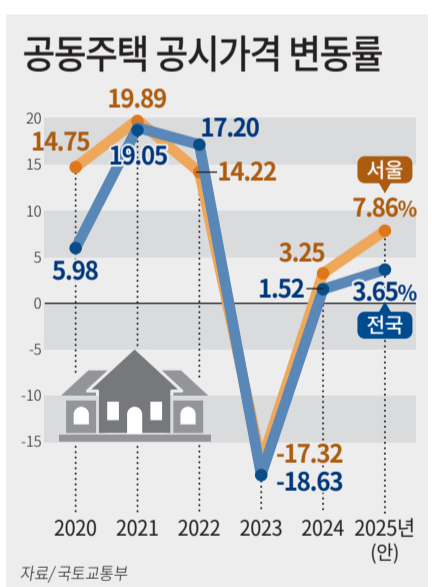
은 국내에서만 1조원가량을 투자했으며 향후 10년 이상 먹거리를 책임질 고부가 가치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대한전선이 기존에 납품했다고 주장하는 해저케이블은 1~2km 수준으로 짧아 50km 이상의 HVDC 케이블을 만드는 LS전선의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라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일한 건축사무소가 경쟁사 공장건설 설계를 수주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LS전선 관계자는 “50km 이상의 해저용 HVDC를 만드는 LS전선을 포함한 총 6개사 공장은 각각 다른 외형을 갖고 있는데 대한전선 공장은 우리 공장과 매우 비슷한 형태”라며 “대한전선이 가운뿐 아니라 다른 설비 업체에도

LS전선 장비와 관련한 기술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 모회사 LS의 지분을 매입했다. 규모는 3%미만이지만 양사의 기술 분쟁속에서 이뤄지고 있어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반측이 경쟁사 지분을 인수해 법적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경영권 개입을 염두에 둔 행동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LS전선의 모회사인 LS 주가는 장중 24%대까지 치솟았다가 18.96% 상승해 마감했다. 호반측은 산업 전망을 보고 지분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HVDC 케이블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전

략적인 움직임’으로 시장참가자들은 해석한다. 호반이 현재 매입한 지분으로 LS를 압박하기 힘들지만 구자는 회장의 지분율 3.63% 보다 많은 지분을 매입하게 될 경우 이사회에 관여하면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호반이 LS의 지분 3%를 확보하게 될 경우 ▲주주총회 소집 청구 ▲주주제안 ▲회계장부 열람권 ▲이사·감사해임청구 등의 권리가 생기게 된다. 즉, 호반의 지분 매입은 LS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LS 고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경쟁사 지분인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곧 발표될 경찰 수사 결과에 앞서 호반측이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날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16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서 결정된 배상액(4억9623만원)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전선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아파트 공시가 3.65% 올라... 서울 7.86% ↑

국토부, 1558만 가구 공시가 공개 경기 3.16%, 인천 2.51% 등 상승 세종 3.28%, 대구 2.9% 등 하락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다. 서울은 7.86%나 상승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뚜렷했다. 세종과 대구는 각각 3.28%, 2.90%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4월2일까지 소유자들이 열람하도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지난해(1.52%)보다는 높지만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다. 지난 정부가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도입한 후 2021년 공시

가는 19.05%, 2022년은 17.20% 올랐다. 현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면서 2023년에는 18.63% 내리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52% 소폭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69%)이 적용됐다. 시세 변동폭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서

울 및 수도권 선호지역은 오르고 지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반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3.28%), 대구(-2.9%),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공시가 상승이 눈에 띄게 높았다. 서초구(11.63%)가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마포구(9.34%), 광진구(8.38%), 강동구(7.69%), 양천구(7.37%), 영등포구(7.06%)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 7100만원으로 지난해(1억 6800만원)보다 300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3억 7400만원), 세종(2억 8100만원), 경기(2억 2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안상미 기자 smahn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자영업자 위해 선구매·선결제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설명하면서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 식당 휴무(주1~2회 이상)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도 했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가격이 높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민간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면세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을 3개에서 6개까지 확대한다. 이달 열리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 및 포장서비스 할인 추진에도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주당 2만원, 최대 4만원 한도로 당초 발표(15%)보다 환급율을 5%포인트(p) 확대한다. 오는 23일까지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앱 입점업주를 대상으로 포장 주문시 5000원을 할인해준다.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원)은 오는 30일까지 30만장을 발행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한다. /서예진 기자 syj@

유럽법인·공장건설 등 해외시장 확대 속도

▶▶ 1면 ‘식물줄 모르는 K-라면...’서 계속
라면 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변수도 존재한다. 특히 미국이 한국 농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변화가 K-푸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내 농식품 수출 기업들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가가 확정되면 미국내 생산기지를 건설하지 않는 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

는 방안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향후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은 인상을 자체 흡수하는 등 업체에 따라 가격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일부 품목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계 전반에 걸쳐 논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저성장 '불안 심리' 확산... 산업구조·규제 등 체질개선 시급

⚠ 긴급점검 이제 내리막길인가

- 글 쓰는 순서 -

1. '피크 코리아' 그림자 드리운 韓 경제
2. 경제는 심리... 모든 경제주체 위축
3. 경제 이빨 기업들 "앞이 안 보인다"
4. 소비시장 주체 가계 "살 돈이 없다"
5. 리더십 없는 정부 "백악이 안 통해"

11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 20년 가까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70대 A(여)씨는 "요새는 하루에 2~3건의 퇴짜받기도 힘든 날이 많다"며 "이대로 더 가다간 사실상 폐업 신고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 50대 조모씨는 "계란 값이 올랐네, 과일값이 더 오르네 하는 뉴스를 보면 가슴이 타들어 간다"며 "하루빨리 경제가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인천에 등지를 틈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광중(가명)씨는 지난해 공장 증설을 알아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후 계획을 접었다. 김씨는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데 큰 비용을 투자할 엄두가 안 난다. 지금은 투자할 시기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가 뜻 없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경제 전반에 퍼진 '불안' 심리는 기업의 투자 시계를 세웠다. 한국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소비도 얼어붙었다. 뛰는 물가와 높은 금리 부담에 돈 쓸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산업구조 혁신과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새로운 통상 환경을 위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투자 '야성적 충동' 사라져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미 진행형이라는 데 의견을 다는 이는 별로 없다. 우선 세



13일 황학동 주방거리에 위치한 중고매장 앞에 주방 장비들이 쌓여있다. /손진영기자 son@

'비상계엄·관세전쟁' 발등의 불 소비·투자 줄며 잠재 성장률 악화 인구 고령화 가속... 소멸위기 직면

계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5% 감소했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악화된 환경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의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재화소비를 뜻하는 1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0월과 11월 0.7%씩 감소했다가 12월(0.2%) 소폭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14.2% 빠졌다.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주요 내수지표 중 하나인 건설경기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기업으로선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 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는 생산 위축으로 이어진다.

'부채의 덩어리'에 빠진 가계는 고금리 이자를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 지난해 3분기 적자를 낸 가구 비율이 23.7%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가까이가 적자상태란 의미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심각성은 더한다. 소득 상

위 20%(5분위) 가구는 적자 가구 비율이 7.1%인데 비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54.8%에 달했다. 하위 계층의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계 적자로 소비는 엄숙해졌다.

◆저성장 현실로... '코리아 소멸' 위기 직면

수출도, 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 성장률을 밀도는 1%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은 통상 갈등 심화로 미국이 주요 무역 적자국에 부과한 관세율을 내년까지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 모두 1.4%로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新)산업 부재, 낡은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집중만 더욱 심해졌을 뿐 20년 전과 거의 그대롭다. 컴퓨터·영상기기가 빠지고, 디스플레이·가전제품이 진입한 정도다. 중국의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는데도 구조조정을 미루

는 바람에 조선·해운업이 큰 위기를 겪은 게 불과 10년 전이다. 최근엔 철강·석유화학이 비슷한 상황에 부딪혔다.

빨라지는 인구 고령화는 '코리아 소멸'을 소환한다. 쓸 돈도 부족하고, 일할 체력도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조은아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장은 최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미래 변화와 금융의 성장 전략 세미나'에서 "(고령층이)주택 처분 등 대출 축소는 주거지 변화의 두려움이나 심리적 거부감으로 쉽게 택하지 못한다"며 "자산이 있는 가계임에도 소득이 부족해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이 짙어진다면 기업투자나 내수 부진은 더 악화할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의 어두운 면이 '한국 경제'의 또 하나의 소멸 트리거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희미해지는 기업 혁신 투자자들 韓 시장 외면

외인, 비상계엄 이후 10조 이상 매도 기업 체력 고갈... 증시침체 악순환

한국으로부터의 엑소더스인가. 외국인 투자자 동향이 심상치 않다. 연일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조원이 넘는 주식을 내다 팔았다. 그 여파로 주식 시장은 2500선에서 맴돌며 맥을 못 추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운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한국 경제가 허덕이는 데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구조와 함께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반도체 가격 약세 같은 외생 변수가 작용했다. 기업들의 체력이 고갈되다보니 외국인이 떠나고 증시가 침체하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양철원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발표한 '무

엇이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설명하는가' 논문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 내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짚었다.

연구진은 "자본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 성과가 좋은 기업일수록 PBR이 높았다"며 "한국 기업의 PBR이 낮다면, 이는 업력이 길고 유형자산 투자가 활발한 기업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의 산업구조가 개선돼 성장주에서도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필요가 있고 이런 방향으로 정부 정책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이 희미해지자 개미들도 등을 진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5%가 미국 증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7.2%는 기업의 혁신·수익성을 꼽았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4.6%가 '국내기업의 혁신성 정체'라고 꼽았다. /신하은 기자



제240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일시 | 2025. 3. 18.(화) ~ 3. 20.(목)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화성특례시의회는 늘 104만 화성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금리 3.2% 이하로 내리면, 가계대출 2.7배 집값 2배 ↑

대출 폭증·집값 상승 압박

기준금리 0.75%p ↓ 성장률 0.26%p ↑
장기·단기 금리 등 일제히 하락세

주택 거래 증가 가계빚 부담 확대
변동금리 대출 54.4% 이자 부담
부채 증가 우려에 거시정책 강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저금리(3.2% 이하)로 떨어질 경우 중금리(4.8% 이하)일 때보다 가계대출은 2.7배, 주택가격은 1.9배 정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다.

◆ 세 차례 금리인하, 내년 성장률 0.26%p ↑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하했다. 올해 2월에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3.5%의 기준금리는 연 2.75%로 떨어졌다.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인 영향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10월 이후의 기준금리 0.75%p 인하는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0.17%p, 내년 성장률을 0.26%p 끌어 올릴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심리가 개

선돼 경기 부양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번에는 장기금리가 기대 단기금리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해, 장기금리로 인한 경기 부양효과가 과거보다 클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장기금리는 미래 단기금리의 평균이다. 단기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

기대치가 커지면서 장기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2%p 하락했다. 이 중 기대 단기금리에 따른 변동분은 1.07%p다.

단기금리 하락도 대출금리에 반영돼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2000년 이후 기준금리가 0.25%p 내릴 때를 보면 장기금리는 평균 2~3%p 하락하는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 통안증권(91일물) 등 단기금리는 평균 8~11%p 하락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변동금리 대출은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금리에 연동돼 있다. 단기금리가 내릴 경우 신규 대출뿐 아니라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잔액의 54.4%, 기업대출의 61.3%를 차지한다.

◆ 3.2% 이하로 떨어지면 “가계대출 2.7배 증가”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록 주택 구매를 부추겨 가계부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인 영향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10월 이후 0.75%p의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5년 0.6%p, 2026년 1.53%p 높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지난 9월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금융여건이 완화되고, 서울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영향이 맞물리면 주택거래 상승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수준이 낮아질수록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비선형적으로 커진다.

가계대출 금리가 저금리(3.2% 이하)일 경우 중금리(3.2% 초과·4.8% 이하)일 때보다 가계대출은 2.7배, 주택가격은 1.9배 증가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4.63%로 집계됐다. 한달 전(4.76%)과 비교해 0.13%p 낮아졌다. 현재 가계대출은 중금리에 속하지만, 향후 기준금리가 떨어져 가계대출이 저금리로 내려가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전제로 보면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으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美 관세에 보복관세까지... 韓 내년 성장률 1.4% 까지 내려갈수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경고

美, 주요국에 고강도 관세 유지
“불확실성 커져 성장경로 논의”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고 고강도로 이뤄지면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보복관세가 이뤄져 통상환경이 불확실해질 경우 경제 심리가 위축돼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은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것보다 시행 시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관세율도 높은 상태로 진행됐다.

<25.2월 경제전망의 관세정책 시나리오>

시나리오	대상국 ¹⁾	관세율 ²⁾	보복관세 ⁴⁾
기본	對중국	현행 유지	저강도
	對여타국	중간 ³⁾	저강도
낙관	對중국	현행 유지 ³⁾	저강도
	對여타국	낮음 ³⁾	없음
비관	對중국	추가 인상	고강도
	對여타국	높음	고강도

한은 관계자는 “당시에는 트럼프 정부가 2분기(4~6월)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협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며 “대(對)중국 관세의 시행 시기가 2월 초로 앞당겨지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돼 이에 따라 시나리오를 기본 낙관 비관으로 새로 설정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에 현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여타 무역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되, 협상을 통해 2026년에는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성장률이 올해 0.1%포인트(p), 내년 0.2%p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 기본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달 25일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 1.8%로 제시했다.

문제는 현재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보다 커졌다는 사실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맞다”며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회의까지 데이터를 보고 성장경로를 바꿀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 시나리오보다 악화된 비관 시나

리오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한 뒤 2026년에도 이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국은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한다.

이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0.1%p, 내년 0.4%p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 시나리오상 1.5%, 1.8%였던 성장률이 모두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비관 시나리오시 미국의 경제성장률도 보복관세에 크게 타격을 입는다.

기본시나리오상 올해 0.3%p 떨어지지만 내년 0.2%p 오르는 성장률은, 비관 시나리오시 올해 0.4%p, 내년 0.8%p 하락한다.

/나유리 기자

美·中 경제 온도차에 외환시장 ‘출렁’... 원·달러 변동성 ↑

환율 불안 증폭

미·중 차별화 확대 외국인 자금 이탈
금리격차 지속에 아시아 투자심리 위축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차별화 정도가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돼 국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

책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 차별화 정도가 확대되고 있다.

우선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기초요건)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3년 2.9% ▲2024년 2.8% ▲2025년 2.7%(전망)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국의 성장률은 ▲2023년 5.2% ▲2024년 4.8% ▲2025년 4.6%(전망)으로 축소폭이 크다. 소득여건이 악화되

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취약성이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금리인하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의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통화정책 포럼 연설에서 “새 정부의 정책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상황이 더 명확해질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말 통화정책 기조를 ‘온건’에서 ‘적절히 완화’로 수정했다. 아울러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America First)은 미국 경제의 성장에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한은은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차별화 정도가 확대될 경우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국은 트럼프 정부 1기때와 달리 대(對)미 수입 의존도가 낮아지고,

관세 이외의 다양한 대응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누구나 타결하지 않으려 하면서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

한은은 이 경우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가 심화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던 2018년초 코스피는 2479.7원에서 2019년 말 2190.1원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돼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이현우 이름을 걸고 일합니다

고객이 기억하고 싶은 이름이 되길
원칙과 신뢰의 이름이 되길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자랑스러운 농협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 품격을 담다



與野, '尹 탄핵' 두고 장외투쟁... 정치적 혼란에 민생은 뒷전

與, 장외투쟁 앞기로 방침 정했지만 탄원서, 릴레이 시위 등 '사실상' 투쟁 野, 선고일까지 국회~광화문 행진 대검 찾아 즉시항고 않은 것 규탄 추경편성 등 국가주요 현안 합의 없이 탄핵정국 앞두고 진영결집에 매몰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임박하자 거리로 나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격해지면서 민생은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사실상 현재 앞 '거리 투쟁'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장외투쟁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개별 의원들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사실상' 거리 투쟁에 나선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현재에 의원 80여명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현재 앞에서 열리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의 숫자도 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출한 2차 탄원서엔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82명이 서



국민의힘 추경호(왼쪽부터), 김기현, 윤재욱 의원이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릴레이 연좌 시위를 하고 있다.

명해 참여율은 76%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28일에 낸 1차 탄원서보다 6명이 늘었다.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 숫자도 늘어 13일부터 5명씩 조를 이뤄 현재 앞 시위를 계속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의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당 의원과 생각이 크게 다른 건 분명히 없습니다만, 지도부는 지도부 입장이 있고 개별 의원은 의원 뜻과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野 대검찰청 찾아檢에 '즉시항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야5당 탄핵연대 소속 김준혁·민형배·박수현·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 '더민재'는 이날 현재 앞에서 '인간띠 잇기' 행동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집회 미신고에 따른 탄핵 반대 촉구 충돌 우려로 팻말 시위를 대신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을 규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른 범죄 피고인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선 기계적으로 항고하는 검찰이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법적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 내란 공범이란 인식만 강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은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며 "검찰은 오늘 내 즉시 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즉시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 주요 현안 논의는 안갯속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시간을 끌면서 정치권이 온통 해당 이슈에 매몰되면서, 민생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하자고 입을 모은 것과 달리 탄핵 정국을 앞두고 진영 결집에 매몰돼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헌법재판소 앞이 아니라 국회다. 국회에서 일을 하자"고 일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헌재, 검사 3인 탄핵기각...尹 선고는 고심

전원일치로 결정... 즉시 직무복귀尹 탄핵심판, 오는 17일·21일 전방 안전 이유로 전일·당일 공지 예측도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계류된 사건을 하나씩 처리하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언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하지만 이날 기각 결정으로 이들은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되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기각 등을 시작으로 계류돼 있던 주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한 선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심판 외에도 지난달 27일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도 내렸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같은날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두 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충돌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뉴스

판 선고도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사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이번주로 예측됐지만, 재판관 평가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한 선고가 있는 만큼, 금요일인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를 연속 선고를 한 사례는 1995년 한 차레 뿐이라고 한다.

이에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고지하는 관례를 고려할 경우 오는 14일 선고일을 알리면 17일, 그렇지 않을 경우 21일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전날(12일)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속의 기간을 갖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헌재가 선고 전일이나 당일 공지할 수 있다는 이

야기도 나온다. 헌재 현재 인근에서 극우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가 지속되는 만큼,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야권은 이날 기각 결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은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경우는 위헌·위법적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기에 기각 결정이 나오기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조만간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겹치는 쟁점으로 인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

우원식 "연금특위 구성, 문구 하나로 불발"

'합의처리' 문구 포함 여부 두고 이견 우원식 "여야 합의 진통... 매우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법개정안은 포함됐지만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연금특위 구성안은 사흘 전에 '13일에 처리하자'고 양 교섭단체가 합의를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결의안 문구 하나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다"며 "여야 합의와 합의의 이행이 이렇게까지 진통을 겪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쟁점 사항이었던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지만 지난 3주간 여야 간 협의가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래서 오늘 상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을 겨냥해 "국민들도 '여야가 기세 싸움만 하고 있지,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을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를 협의해왔다. 하지만 막판까지 '합의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놓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한편 우 의장은 정부에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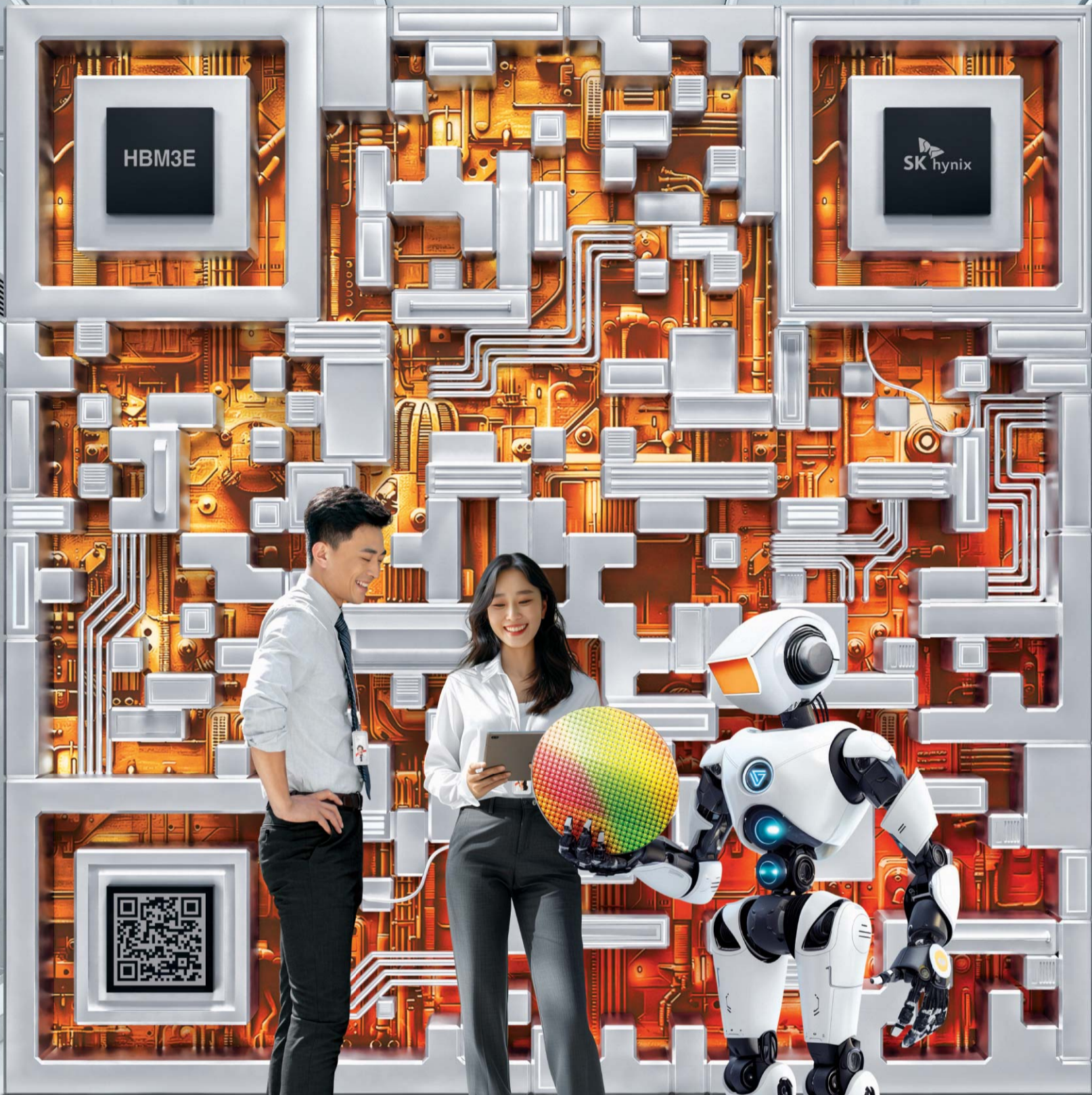
與, 崔 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건의 계획

>> 1면 '상법개정안 국회통과...'서 계속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선 비상대책 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 입장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호·허정운·박태홍 기자 bada@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We Do Technology | SK hynix

신사업 카드 꺼낸 건설사... 주총 앞두고 주주 달래기 총력

건설경기 침체 속 성장동력 집중
삼성물산, 고수의 구조 전환 지속
현대건설, 수소 에너지 사업 확대
GS건설, 통신판매업 정관에 추가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사업으로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과 함께 배당 등 주주환원도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현대건설(20일)과 DL이앤씨(24일), GS건설(25일), 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한화(26일) 등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건설사들의 주주핵심 키워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성장동력 확보다.

삼성물산은 이번 주총을 통해 수소



주요 건설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 엔진을 찾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시스

발전 및 관련 부대사업, 통신판매중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다.

삼성물산은 “올해 건설부문은 차세대 기술 역량 확보를 통한 차별적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고, 해외 핵심 시장 현지화 및 사업 모델 다변화를 통해 고수익 사업구조로 전환을 지속하겠다”며 “에너지솔루션과 탈현장시공(Off-Sit

eConstruction), 주거·빌딩플랫폼 등 유망 분야의 신규 사업기회 발굴과 성과 창출로 미래 성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주거 플랫폼으로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와 함께 문화 생활, 건강 관리 등 주거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App)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니’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빌딩플랫폼 ‘바인드’를 출시했다. 시공 중심의 건설 사업 영역을 넓어가기 위한 사업전략이다.

현대건설 역시 수소에너지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다. 현대건설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 수소플랜트 EPC 등 수소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그룹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수소시장 규모가 오는 2050년에는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제주 그린수소 생산플랜트 등에 입찰을 참여할 예정이며, 남호주 그린수소 생산개발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작년 대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주당 배당금은 600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당 600원은 현대건설의 배당정책상 최저 배당금이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로는 재무전문가인

정문기 성균관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를 재선임한다.

GS건설은 신사업으로 통신판매업을 정관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로 손병석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후보로 추천했다.

GS건설은 “손 후보자는 건설산업 전문가로서 회사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 후보자는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한 현 회계학 교수로서 폭넓은 재무·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투명한 회계업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등은 26일에 주총을 개최한다. 대우건설은 기존 사외이사(김재중, 이인석, 김재웅 등)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디지털 전환에 카드모집인 4000명선 붕괴

카드사 8곳 카드모집인 수 3815명
진입 어렵고 수익성 떨어져 감소세

한때 전국에 1만명 넘게 활동했던 카드모집인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6년여간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그냥 쉬었음’ 청년이 50만명을 돌파했지만 신규 유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수는 3815명이다. 1년새 1618명 감소했다. 지난해 말 전국 카드모집인은 4000명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올해 3000명대로 주저 앉았다. 지난해부터 관련 통계에 비씨카드의 모집인도 포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소세가 가파르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카드모집인은 1만1382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매년



주요 건설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 엔진을 찾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시스

1000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3000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1950명이 이탈했다. 이같은 속도라면 2년 이내 전국의 카드모집인은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카드모집인 감소 원인은 카드사의 디지털 전환(DT)이 자리 잡고 있다. 카드

업계는 지난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카드 영업을 강화했다.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사와 함께 신규 회원을 유지했다.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 것도 모집인 감소 원인으로 지목된다. 카드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임금과 인센티브의 일부를 신용카드 가입자에게 제공하면서다. 플랫폼을 통해 영업비용을 효율화한 것.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카드사 8곳의 모집비용은 4824억원이다. 지난 2019년 7011억원 대비 31.2% 감소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모집, 제휴사 모집 등 비대면 모집 증가에 따라 신용카드모집인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카드모집인이 줄면서 신규 모집인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카드모집인은 카드사 1곳의 신용카드만 영업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기존 모집인의 추천을 통해 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변에 카드모집인으로 활동하는 지인이 없다면 자격이 있어도 영업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불안정한 고용형태도 신규 유입을 저해한다. 카드모집인은 사실상 개인사업자다. 통상 계약기간 10만~15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각 사별 영업전략에 따라 상이하지만 연회비, 전월실적달성, 이용 수당 등 세부 항목을 달성하면 추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유사한 직종인 보험설계사와 비교하면 영업에 따른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도 카드모집인은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카드업계 또한 디지털 전환으로 비용절감을 이룬 만큼 모집인을 통한 영업창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10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위권 모집인을 영입하기 위해 카드사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플랫폼 영입이 더 중요하다”라며 “모집인뿐 아니라 지역 거점 점포도 줄이고 있는 만큼 온라인 영입이 강세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선 기자 kimsan119@

보험 브리핑

한화생명 보험금 지급능력 ‘AAA’ 최고 등급

한화생명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가 최고 등급인 ‘AAA/안정적’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2일 한화생명의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신용등급을 기존 ‘AA+/긍정적’에서 ‘AAA/안정적’로 상향했다. 지난해 6월 등급전망이 상향된데 이어 9개월여만에 신용등급까지 국내 최고 등급으로 격상됐다.

한국신용평가는 한화생명의 등급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GA시장 내 영업 채널 경쟁력 확대에 따른 시장지배력 강화 ▲양질의 신계약 유입으로 인한 보험부문의 안정적인 이익창출력 확보 ▲제도 강화에도 안정적인 자본비율 관리 등을 꼽았다.

삼성생명 밸런스 종신보험 신규 특허 부여

삼성생명은 특허청으로부터 ‘삼성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등록번호 10-2775775)를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오는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 및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했다. 연금전환재원(연금전환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슬로건 아래 생활 금융 전환을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주형 기자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인수 철회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철회했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을 보험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앞서 네 차례의 매각 입찰 실패에 이어 이번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MG손해보험의 다섯 번째 새 주인 찾기도 실패했다.

그동안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MG손해보험 노조는 고용 승계 보장을 요구했고 메리츠화재는 직원 10% 고용 유지와 250억원의 위로금을 제안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반납하면서 일각에서는 MG손해보험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보험계약자들의 피해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MG손해보험은 156만건의 보험계약과 124만명의 보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 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으나 저축성 보험 등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입주 동시에 고객 맞춤형 인테리어 완성”

DL이앤씨, ‘디 셀렉션’ 출시
분양 때 취향 반영 디자인 제안

DL이앤씨가 인테리어 솔루션 ‘디 셀렉션(D Selection)’을 선보였다. 건설사가 분양할 때 선택토록 했던 기존 추가 품목에서 한 단계 진화해 고객의 취향까지 반영할 수 있게 했다.

DL이앤씨는 건설사 최초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인테리어를 입주와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제안하는 브랜드 ‘디 셀렉션’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사 아파트는 획일화된 인테리어로 입주자들은 새 집임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를 개별적으로 다시 진행하고, 여기에

큰 비용과 시간,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상품 개발에서부터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을 전면 업그레이드해 기존 건설사에서 제공하던 추가선택품목의 영역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디 셀렉션을 국내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미지와 콘텐츠 빅데이터 170여만건의 다양한 지표 분석을 통해 고객이 선호하는 인테리어 스타일과 디자인을 개발했다. 공간에 소비자의 취향을 더한 큐레이션을 통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스타일 패키지로 완성해 제안한다. 현재 선택 가능한 패키지는 ▲미니멀 스타일 ▲소프트 클래식 스타일 ▲모던 내추럴 스타일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화오션, 美 해군 MRO 성공... 韓 해양방산 이정표 세웠다

〈유지보수·정비〉

김동관 부회장, 현장경영 빛나
윌리 쉬라호 정비 마치고 출항
靑·중동·유럽 등 MRO 사업 확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호'

/한화오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화오션이 대한민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국내 조선사 중 처음으로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및 정비(MRO) 사업을 완료한 것이다.

한화오션은 13일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호가 정비를 마치고 출항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에 대해 한미 해양방산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MRO 작업은 거제사업장에서

6개월간 진행됐으며 선체 및 기관 유지보수, 주요 장비 점검 및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이 포함됐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초기 계약 당시 인지하지

못한 함정의 새로운 정비 소요를 확인해 기술력을 입증했고, 이를 통해 매출도 증가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7월 미국 함정 정

비 협약(MSRA)을 체결한 후 첫 프로젝트로 윌리 쉬라호 MRO를 수주했다. 현재 지난해 11월 미 해군 7함대 소속 급유함 유콘호도 수주해 정비하고 있다. 유콘호는 거제 지역 내 중소 조선업체와 협력해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윌리 쉬라호의 성공적 정비 사업을 계기로 한국 조선소를 글로벌 해군 MRO 시장의 요충지로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아시아, 중동, 유럽 등으로 MRO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세계 해군 MRO 시장은 약 80억달러(11조6304억원) 규모다.

한화오션은 올해 5~6척의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수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MRO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등에 참석해 미국 새 정부의 주요 국방 안보 책임자들과 만나 한화오션의 사업 역량을 소개하고 미국 내 사업 기회를 모색한 바 있다.

패트릭 무어 미 해군 해상 수송 사령부 한국과견 대장은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MRO사업 태스크포스팀(TFT) 상무는 "이번 MRO 사업 성공을 통해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INI코리아, 韓 시장 진출 20주년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출격... "전동화 시대 선도"

'에이스맨·쿠퍼·컨트리맨'

성능·기술·미래 혁신 포부 밝혀
"전기차, MINI 감성·경쾌함 계승"

"혁신적인 디지털 경험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춘 다재다능한 MINI(미니)는 국내 프리미엄 소형차 시장에서 연 1만대, 누적 12만대의 판매량을 넘긴 브랜드다."

정수원 MINI코리아 총괄 본부장은 13일 인천 영종도 'MINI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패밀리' 3종 출시 행사에서 한국 시장 진출 20주년을 맞은 MINI 브랜드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MINI코리아는 소형차 불모지인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프리미엄 소형차'라는 세그먼트를 최초로 도입한 브랜드다.

정 본부장은 "MINI코리아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성능의 혁신,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미래의 행보에 새롭게 선보이는 전기차 3종이 선두에 선



MINI코리아는 13일 인천 영종도 'MINI 드라이빙 센터'에서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패밀리 'MINI 에이스맨, MINI 쿠퍼, MINI 컨트리맨(왼쪽부터)' 등 신형 전기차 3종을 공개했다. /MINI코리아

다"고 말했다.

이날 MINI코리아는 한국 진출 20주년을 기념, '미니이십'이라는 한글과 태극문양을 활용해 제작한 엠블럼도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BMW그룹이 해외 법인 중 국가에 맞춰 엠블럼을 제작한 것은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 소비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MINI코리아는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의 핵심 모델인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패밀리 시리즈인 'MINI 에이스맨', 도심형 전기 모델 'MINI 쿠퍼', MINI의 첫 번째 전기 패밀리리카 'MINI 컨트리맨' 등 총 3종을 선보였다.

특히 MINI 쿠퍼와 MINI 컨트리맨 사이에 위치하는 콤팩트 SUV인 MINI 에이스맨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최초로 적용한 모델로 BMW그룹의 5.5세

대 고전압 시스템을 적용했다.

파워트레인인 E와 SE 2가지 종류로 출시되며 최고출력은 각각 184마력, 218마력이다. 54.2킬로와트시(kWh)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유럽 WLTP 기준 405km, 국내 기준 312km다. 급속충전으로 배터리를 10~80%까지 충전하는 시간은 약 31분 소요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MINI 쿠퍼 전기차는 고유의 차체 비율과 클래식한 원형 헤드램프, 팔각형 그릴, 유니언 잭을 형상화한 리어램프 등을 유지해 MINI 고유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계승했다. 최고출력은 218마력이며,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유럽 WLTP 기준 400km, 국내 기준 300km다.

MINI 컨트리맨은 MINI가 출시하는 첫 번째 전기 패밀리리카로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넉넉한 공간과 뛰어난 활용성을 갖추는 데 초점을 뒀다. MINI 컨트리맨은 2가지 파워트레인으

로 판매되며 'SE ALL4'는 2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된 4륜구동 모델로 최고출력 313마력의 성능을 발휘한다. 인증받은 주행가능거리는 4륜구동 모델의 경우 유럽 WLTP 기준 432km, 국내 기준 326km다.

특히 MINI코리아는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패밀리를 개발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해 개발한 직경 240mm 원형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선명한 화질과 신속한 반응성으로 스마트폰을 닮듯 익숙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차량 가격은 MINI 에이스맨 E와 SE가 각각 4970만원, 5800만원이며, MINI 쿠퍼는 클래식 5250만원, 페이버드 5610만원, MINI 컨트리맨은 E클래식 5670만원, SE ALL4 페이버드 6310만원, SE ALL4 JCW 6610만원이다.

MINI코리아 관계자는 "MINI 고유의 감성과 경쾌함을 순수전기차에 고스란히 담아낸 이번 신형 모델은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각기 다른 매력과 뛰어난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며 "전동화 시대를 선도하는 MINI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 판매

건조용량 18kg... 쾌속코스 79분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세탁·건조 용량에 성능도 크게 높인 2025년형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을 14일부터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건조용량을 기존 제품보다 3kg나 늘려 국내 최대 18kg의 건조 용량을 달성하고, 열교환기 구조와 예열 기능 개선해 건조 시간을 20분이나 단축했다. 세탁 용량과 건조 용량은 각각 25kg와 18kg으로 국내 최대 용량이다.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열교환기를 통해 건조 효율을 극대화했다. 열교환기의 핀(fin)을 더욱 촘촘하게 배치해 전열 면적을 약 8% 확대했다. 건조 히터를 통해 예열

기능의 효율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건조 시간을 기존 모델 대비 20분 가량 크게 줄였다. '쾌속 코스' 기준으로 단 79분 만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수행할 수 있다.

세탁 시 에너지소비효율도 좋아졌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드림세탁기 1등급 최저 기준과 비교해 세탁 시 세탁물 1kg 당 소비전력량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최저기준보다 45% 낮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7형 터치스크린 'AI 홈(Home)'이 탑재돼 스크린으로 다양한 코스와 기능을 한눈에 보고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특히 'AI 홈' 스크린에서 집안 도면을 3차원으로 보여주고 연결된 가전의 위치와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3D 맵뷰(Map View)'를 활용해 스마트싱스



삼성전자 모델이 2025년형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에 연결된 기기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 고도화된 '빅스비(Bixby)'를 통해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음성 제어가 가능하다. 기존에 학습되지 않은 지시나 복잡한 명령어도 이해하고 직전 대화를 기억해 연속으로 이어서 대화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화에어로, 친환경 무탄소 선박 시장 진출

선급협회 DNV 개념승인 인증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0kW(킬로와트)급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인증을 획득해 친환경 무탄소 선박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지난해 말 개발한 액침냉각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함께 무탄소 동력원을 잇달아 확보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2일 세계 권위의 선급 협회인 DNV로부터 AIP(개념승인)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IP는 수소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제작할 때 기본설계 단계부터 기술 적용의 안정성과 국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해 주는 절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KR(한국선급) AIP 인증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DNV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DNV 인증을 받은 수소연료전지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다. 저온에서도 발전이 가능해 안정적이고 에너지효율이 높아 선박 등 운송에 적합하다. 또한 병렬제어 기능으로 MW(메가와트) 단위의 용량 확장이 가능해 중대형 선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AIP의 다음 단계인 선박용 연료전지의 형식 인증도 확보해 무탄소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선박 개발 시장에서 한화오션과 함께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중소 해외 설비투자 지원 확대... 글로벌 거점 2곳 신설

중진공, 규모·지원방식 조율
올해 美 실리콘밸리에 KSC
GBC 1곳 추가 日 오사카 유력
온라인·물류 지원 예산 증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장 다변화를 주가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설비 투자 등에 대해서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 중진공내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신규사업추진반에서 규모, 지원 방식 등을 올해 안에 결정해 지원을 본격화한다. 미국 트럼프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해외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중진공이 운영해 현재 16개국, 26곳에 두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C),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는 올해 각각 한 곳씩 늘린다. GBCC는 진출 수요가 많은 일본 오사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KSC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낙점됐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전쟁 도발로 해외 수출, 진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신시장진출지원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자세히 보기

2025년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고비즈 수출지원, GobizKorea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을 통한 중소기업의 B2B수출을 지원하는 사업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온라인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마케팅, 바이어 매칭,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진수중 글로벌소평을 활용 판매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신청기간: ~ 3.18.(화) 18:00 까지	진수중 자사물 진출사업 수행기관 모집 신청기간: ~ 3.18.(화) 18:00 까지	진수중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사업) 수행기관 모집 신청기간: ~ 3.18.(화) 18:00 까지	진수중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청기간: ~ 3.31.(월) 18:00 까지
---	---	--	--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B2B 온라인수출플랫폼 '고비즈코리아' 화면.

자금(582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원) 등 다양하다.

중진공 박장혁 글로벌성장지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진공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며 물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영으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 내용을 추가했다. 신시장 진출지원자금은 대외 리스크 분산, 수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수출 다변화 기업 위주로 중점 지원한다.

중진공은 또 미국의 보편관세부과 등 변화하는 정책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제공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GBCC를 중

심으로 역할도 분담했다. 워싱턴 GBCC는 정책 일관, 시카고 GBCC는 바이오·의료 기기, 뉴욕 GBCC는 테크서비스, LAGBCC는 소비재(뷰티·푸드) 등이다. 또 올해 GBCC와 KSC를 한 곳씩 추가하면 중진공이 운영하는 전 세계 거점은 16개국, 28곳으로 늘어난다.

중진공 양동민 온라인수출처장은 "중소기업들이 우수 제품을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B2B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마케팅, 사후

관리 등 수출지원에도 힘쓸 것"이라며 "올해 온라인수출플랫폼, 온라인수출 지원, 공동물류 지원 등 온라인 수출지원을 위해 34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는 올해 2월 현재 해외바이어 35만명, 국내 중소기업 약 8만6000개사, 상품 총 31만건이 등록돼 B2B 온라인 수출 참여 역할을 하고 있다.

중진공은 또 올해 처음 '테크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400개사를 돕는다. 이는 1곳당 3500만원의 지원금을 통해 디지털·AI기술 등 서비스 수출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클라우드 및 데이터 활용비용 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들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 '스마트트레이드허브'도 준비하고 있다. 전용 물류센터가 본격 가동을 시작, 하루 1만4000건을 처리하면 건당 4650원의 물류비가 절감되는 등 연간 총 268억원의 물류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두산에너지빌, 사우디서 발전소 수주... 중동시장 공략 가속

사우디 전력사업 2.2조 수주 성과
'비전 2030' 전력 인프라 사업 확장
한전 컨소시엄 협력 EPC 입지 강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에너지 다각화 정책을 기회로 삼아 현지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에 본격 나선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전 2030' 정책에 맞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며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전 컨소시엄과 EPC 계약 체결

13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프로젝트 개발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과 2조 2000억원 규모의 '사우디 루마1·나이리아1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발전소 건설 전문회사인 셉코3(SEPCO-3)와 컨소시엄으로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공급, 설치,



지난 2019년 9월 두산에너지빌리티 직원들이 가스 터빈 초도호기 최종조립을 위해 로터 블레이드를 케이싱에 설치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EPC(설계·조달·시공) 방식으로 202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사우디 전력조달청(이하 SPPC)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루마1과 나이리아1 프로젝트는, 각각 리야드 북동쪽 80k

m와 470km 떨어진 곳에 1800MW급 가스복합발전소를 1기씩 건설해, 향후 25년간 생산된 전력을 SPPC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한전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SPPC와 전력판매계약(PPA)을 체결했다.

◆현지 네트워크로 기회 넓혀

이번 가스복합 사업은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주도의 '비전 2030'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자국의 발전용량을 30GW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가동중인 석유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돌려 2030년까지 가스발전 50%, 재생에너지 50%로 전환할 계획이다. 루나 1·나이리아 1 발전소도 가스복합 확대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향후 두산에너지빌리티와 한전의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모르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설비 규모가 2025년 92.9GW에서 2030년 123.2GW로 연평균 6GW 규모의 발전소가 증설될 전망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성장해왔다. 지난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 파라잔 프로젝트에 기자재를 납품하며 해수담수화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이현호 Plant EPC BG장은 "이번 계약은 중동 지역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맞물려 두산에너지빌리티의 건설 수행 기술과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IG넥스원

중남미 방산 시장 정조준

'콜롬비아마르 2025' 참가

전시회 관람·선물 증정 행사

LIG넥스원이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방위 컨퍼런스 '콜롬비아마르 2025'를 통해 중남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LIG넥스원은 오는 14일(현지시간)까지 콜롬비아 까르파헤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방위 컨퍼런스 '콜롬비아마르 2025'에 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콜롬비아마르는 조선해양·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콜롬비아 해군과 국영 조선사 코텍마르가 격년제로 주최하는 컨퍼런스 및 전시회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LIG넥스원은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C-Star)', 경어뢰 '청상어' 등 해양유도무기를 비롯해 중남미 시장 확대를 위해 HD현대중공업과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을 초청해 전시회 관람 및 선물 증정 등 격려행사를 가진다.

LIG넥스원은 중남미를 수출 전략 지역으로 설정하고 2011년 현지사무소를 개소하고 2012년부터 콜롬비아 방산·보안 분야 국제전시회인 'EXPO DEFENSA'에 참가하는 등 현지 획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LIG넥스원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콜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의 군 현대화 움직임에 발맞춰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소상공인 판 팁스 첫 시행... 정부, 최대 2억 사업화자금 매칭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 사업' 시작
투자IR피칭, 박람회, 컨설팅 등 지원

민간이 투자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최대 2억원까지 추가 투자하는 '소상공인 판 팁스' 사업을 최초로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 II)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에게 선 투자하면 정부 예산에서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팁스 II' 사업으로도 불린다.

중기부는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브랜드인 '라이콘(LICORN·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우

선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에 투자 제안을 하고, 운영사(민간투자사)의 투자 검토·심의를 거쳐 투자를 받으면 투자연계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을 얻게 된다.

앞서 중기부는 유망 소상공인 발굴을 위해 자격을 갖춘 22개 민간투자사를 선정해 있다.

이후 소상공인이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사업신청을 하면 요건 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시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 소상공인은 사업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업 주관기관인 초기투자역셀러레이터 협회에서 운영하는 투자IR피칭, 투자자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세무·법률·특허 등 전문가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투자(LIPS I)'를 받은 소상공인도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신청해 평가를 통해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www.sjame.co.kr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

2025. 3. 25.(화) ~ 3. 28.(금)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일원(경북 상주시)

전시분야

자율작업, 농업로봇, AI,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기계 전시
일반 농기계·자재 전시(수도작, 밭농업, 축산, 수확 및 가공, 시설농업 등)

부대행사

학술심포지엄, 시설원예수출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밭농업기계 담당자
현장 교육, 승마로봇체험, 경품응모 등

문의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수출전시팀 : 041-411-2135~7
상주시 농업정책과: 054-537-7441~2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상기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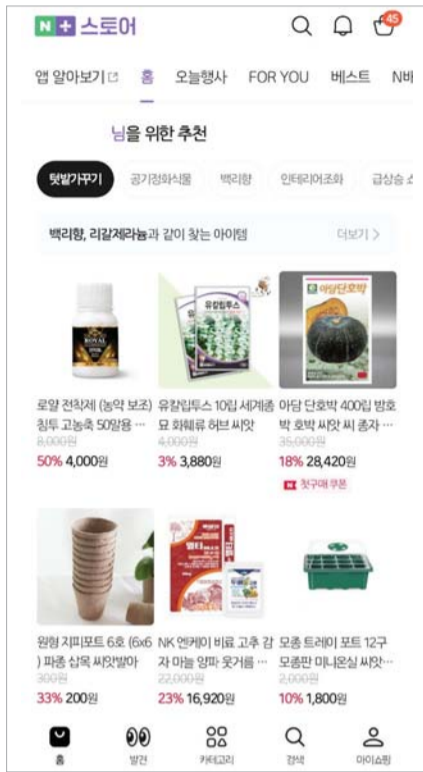
주최:  상주시 주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용자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판매자에게 ‘기회의 장’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론칭

이용자 분석해 개인화 상품 추천 ‘발견’ 탭으로 콘텐츠 경험 확장 알고리즘 제외 못해… 한계 존재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애플리케이션(AP)에 접속하자 제일 먼저 홈 화면에서 눈길을 잡아끈 것은 ‘쿠폰받기’였다. 단골 스토어에서 프로모션을 위해 배포한 쿠폰이었다. 스크롤을 내리자 ‘관심있게 봤던 상품’이 나왔다. 보름 전, 기자는 봄을 맞아 식물을 구입하고 집안 분위기를 바꿔볼까 하는 마음으로 네이버쇼핑에서 식물과 가구를 구경하고 장바구니에도 넣었다. 처음 보는 상품들도 함께 떴다. 기자가 관심을 갖고 보던 식물과 비슷한 식물이 ‘플랜테리어’라는 이름으로, 구입하려면 가구와 함께 배치할 만한 협탁은 ‘급상승 쇼핑’으로 제시됐다. 추천으로는 꽃씨와 함께 작은 화분이 떴다. ‘신기할 만큼 취향대로 뜨는구나!’ 하며 스크롤을 내리다 멈춰섰다. 실수로 누른 어린이용 마스크와 함께 어린이용 교구와 장난감을 판매하는 라이브쇼핑이 뜬 것이다. 기자는 아이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홈 화면.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를 전면 적용해 쇼핑 서비스 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론칭했다. /캡처

13일 네이버 자체 인공지능(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적용해 초(超)개인화를 목표로 한 쇼핑 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직접 살펴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은 단순히 개인의 장바구니와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추천 상품을 제시하는 데서 더 나아가 트렌드와 취향까지 분석하고 있었다.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이용자의 선호도와 구매 이력, 맥락, 의도 등을 분석해 개인화된 상품 추천을 제공한다. 또 현재 노트북, 휴대폰, 냉장고, 에어컨에 우선 적용 중인 AI 쇼핑 가이드는 사용성을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을 제공한다.

실제로 앱에서 ‘노트북’을 검색하자 AI 쇼핑 가이드가 뜨면서 ‘구매 TIP’ ‘디자인 작업하기 좋은’ ‘휴대성 좋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등 노트북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고려하는 것들이 떴다. 구매 팁을 클릭하자 화면크기부터 해상도까지 구매시 고려할 점들이 간략하게 설명됐다.

김주관 네이버 쇼핑 프로덕트 부문장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은 사용자가 자주 찾고, 다양하게 활용할수록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기반한 상품을

발견하는 경험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를 기점으로 쇼핑 플랫폼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상반기 중 쿼터머스를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으로 판매자와 사용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쇼핑뿐 아니라 콘텐츠 경험도 확장하기 위해 ‘발견’ 탭이 추가됐다. 발견은 개인화된 숏폼 콘텐츠 추천 서비스로, 스토어 앱 하단에 있는 ‘발견’ 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최신 트렌드의 인기 상품을 30초 내외의 영상으로 소개하며 다양한 카테고리에 걸쳐 요즘 뜨는 상품들을 탐색하다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해당 탭에서는 개인의 선호나 구매 이력과는 별개다.

전반적으로 AI를 적용함으로써 쇼핑이 쉽고 간단해졌지만 한계도 노출됐다. 단 한 번이라도 누른 상품은 계속 화면에 표시되고, 이와 연계된 상품도 같이 노출되지만 이용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관심 여부를 표시하고 알고리즘에서 제외할 방법은 없었다.

발견 탭에 뜬 강아지 간식 상품을 클릭하자 다음 홈 피드부터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은 계속해서 다양한 강아지 용품을 추천했다. 앞서 강아지 관련 용품을 전혀 구매해본 경험이 없어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어린이용품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용 마스크는 여전히 ‘OOO님을 위한 큐레이션’에 버젓이 뜨고 어린이를 위한 교구와 장난감들도 끊임없이 노출됐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고도화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기술 기반의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로 네이버가 지난 10여 년간 구축해온 쇼핑 생태계는 더욱 확장되고 이용자들의 쇼핑 경험 역시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이 이용자에게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쇼핑의 즐거움을 주는 특별하고 소중한 탐험의 장소가 되고, 판매자에게는 AI라는 강력한 비즈니스 수단을 지원해 더 큰 성장의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U+ - ICTK, 양자보안 기술협력 강화

AI 에이전트 ‘익시오’ 등 보안 강화 KMS 서버에 PUF 연내 적용 예정 PUF칩 탑재 유심 개발도 목표

LG유플러스는 ICTK와 함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비롯한 모바일서비스 보안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ICTK의 특허기술인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PUF)을 암호키 관리 시스템(KMS) 서버에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PUF는 반도체 칩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암호키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암호키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마다 동일한 키를 생성해 해킹과 복제를 원천 차단한다. PUF로 보안이 강화된 시스템이 도입되면 LG유플러스의 AI 에이전트 서비스인 익시오 전화 통화도 한층 더 안전해진다.

나아가 암호키 생성에 양자난수생성기(QRMG)를 활용해 암호키 복잡도를



LG유플러스는 아이씨티케이(ICKT)와 함께 양자보안 기술협력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이정원 ICTK 대표(왼쪽)와 강종오 LG유플러스 기업서비스개발Lab장이 협력을 다짐하는 모습. /LG유플러스

높이면 제3자가 해독하기 어렵다. 암호키를 전송하는 과정에서도 양자내성암호(PQC) 알고리즘을 적용해 데이터 도청, 중간자 공격 등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익시오 사용자 고객은 스마트폰에 쿼터칩 등 별도 하드웨어가 없어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화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양사는 연내 PUF칩이 탑재된 스마트폰 가입자식별모듈(USIM)을 개발해 단말 내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 암호키를 별도 PUF USIM에 저장해 기존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LG유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사임

(카카오 창업주)

내달 포털사이트 ‘다음’ 분사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사진)가 건강상의 이유로 카카오 CA협의체 의장을 사임한다. 또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내달 분사된다.

카카오는 13일 김 창업주가 CA협의체 공동의장에서 물러날 예정이며 2023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경영혁신위원회 활동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앞으로 정신이 카카오 대표가 단독 의장으로 활동한다.

카카오에 따르면 김 창업주는 현재 방광암 초기를 진단받아 당분간 수술과 입원 등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이미 정신이 대표가 그룹 전체 현안을 주도하며 전략을 세우고 수행 중인 만큼 경영상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



이다. 다만 김범수 창업주는 그룹의 비전 수립과 미래 전략을 그려가는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직책은 계속 수행한다. 국내외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 빠른 의사 결정 및 실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014년 다음과 합병한 카카오는 포털·검색·콘텐츠 분야의 경쟁 심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카카오는 다음을 완전한 별도 법인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김 창업주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창업주는 구속 101일만에 보석금 3억원 납부 조건으로 풀려났다. /김서현 기자

LG CNS AX분야 신입사원 모집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기업 LG CNS는 오는 31일까지 AX 분야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AI ▲클라우드 아키텍처 ▲클라우드 AM(앱 현대화) ▲DX(디지털 전환) 엔지니어 ▲ERP(기업 자원 관리)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디지털 마케팅 등 총 8개다.

AI 직무는 기술 분석과 검증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설계하고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

/김현정 기자

KT-팔란티어, AX 사업 가속화 ‘맞손’

‘월드와이드 파트너 에코시스템’ 합류 KT는 미국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와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AX(인공지능 전환) 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KT는 국내에서 최초로 팔란티어의 비즈니스·기술 전문가 파트너 네트워크인 ‘월드와이드 파트너 에코시스템’ 공식 멤버로 합류했다.

S&P 500 구성 기업인 팔란티어는 대규모 데이터 통합과 분석을 통해 정부

와 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다. 특히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시스템을 실제 운영 환경에서 최적화해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양사는 ▲금융업 등 국내 AX 시장 대상 공동 비즈니스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KT SPC) 협력 ▲한국형 AIP 부트캠프(AI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임직원 AI-데이터 역량 교육을 함께 추진한다. /김서현 기자

워크데이, AI 에이전트 통합 관리한다

‘에이전트 시스템 오브 레코드’

인사·재무 관리 지원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 워크데이는 자사와 타사의 모든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워크데이 에이전트 시스템 오브 레코드’를 연내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워크데이 에이전트 시스템 오브 레코드는 AI 에이전트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필수 핵심 도구를 제공한다. 인사 담당자는 기업 내 인사 업무에 사용되는 AI 에이전트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워크데이 자체 에이전트뿐 아니

라 다른 회사의 AI 에이전트까지 연동해 활용 가능하다.

이날 워크데이는 고객이 워크데이 에이전트 시스템 오브 레코드를 통해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도 올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객사에 ▲기업의 모든 계약서를 분석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내는 ‘계약 에이전트’ ▲유효하지 않은 급여 데이터를 찾아 업데이트하는 ‘급여 에이전트’ ▲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재무 감사 에이전트’ 등의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워크데이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

글로벌 기업·사모펀드·VC까지... 'K-뷰티 M&A' 예의주시

작년 화장품 수출액 102억 달러 엔코스 등 7개 뷰티사 매각 거론
美 수입 점유율 22%로 韓 선두
“뷰티제품 ‘감성 영역’이 중요해
국산 인기 상당기간 지속될 것”

인수합병(M&A)시장에서 'K-뷰티' 기업들의 몸값이 뛰고 있다. 글로벌 뷰티 기업 뿐 아니라 돈 냄새를 맡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PEF)들도 K-뷰티의 성장세에 베풀며 인수전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13일 뷰티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재 매각이 거론되고 있는 회사들은 ▲달바글로벌 ▲피코스텍 ▲아로마티카 ▲엔코스 ▲클래시스 ▲화성코스메틱 ▲지디케이화장품 등이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뷰티 기업과 국내외 사모펀드, 벤처캐피탈(VC) 등이 M&A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여질 것으로 본다.

한만휘 MMP 이사는 “요즘 사모펀드나 VC 같은 투자 기관들 중 K-뷰티 섹



/유투이미지

터를 검토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소비재나 뷰티 섹터는 M&A 시장에서 인기 있는 분야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뷰티를 인수하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시장 성장이 가팔라

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02억달러(약 15조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수입 점유율 1위를 유지하던 프랑스(16.3%)를 따돌리고 한국(22.2%)이 선두에 올라섰으며, 일본에서는 3년째 화장품 수입국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최근 M&A를 주도하는 곳은 돈 냄새를 맡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PEF)들이다.

지난해 3월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모건스탠리프라이빗에쿼티(MSPE)는 ‘메디필’, ‘데마메종’으로 유명한 화장품 기업 스킨이데아를 약 1000억원에 인수했다. MSPE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발히 투자 활동을 펼치는 글로벌 투자사로, 스킨이데아 인수를 통해 K-뷰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KB증권 PE본부(KBPE)와 나우IB캐피탈(나우IB)은 화장품 제조·생산 기업 이시스코스메틱의 인수를 완료했다. 나우IB는 과거 법정관리 상태였던 ‘뽀아’를 성공적으로 회생시켜 코스닥 상장까지 이끌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큰 손’으로 꼽히는 구다이글로벌은 지난해에만 티르티르, 크레이버코퍼레이션, 라카코스메틱스 등 3개사를 품에 담았다. 티르티르는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더함파트너스와 재무적 투자자에게 지분 63.6%를 매각했고, 지난해에 구다이글로벌이 다시 인수한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독도토너로 유명한 서린컴퍼니 매각과 관련해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홍성표 삼일회계법인 K뷰티 섹터 리더는 “더함파트너스는 티르티르를 1년 만에 매각했는데 인수 시점부터 바이어를 고려했다는 방증”이라며 “상대적으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낮은 OEM, ODM 분야도 주목할 만하며 뷰티제품은 ‘감성 영역’이 중요해 국산 제품의 인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M&A 자문사 MMP의 ‘화장품 산업 M&A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기업의 M&A 건수는 18건(2조3376억원)으로 전년 7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4건에서 2021·2022년 10건, 2023년 11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홈플러스 관련, 금융사 책임조사 진행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개인 투자자에 판매한 홈플러스 관련 CP·회사채 등 판매액 제출 요구
이번주 금융위 보고, 조치 취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전단체(ABSTB) 사태와 관련해 관련 금융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금융사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내로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회사채, 전자단기사채(STB), ABSTB 등의 판매 금액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



/허정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진 홈플러스 전단체(ABSTB)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이 원장은 “전단체 판매 문제나 세일앤리스백(sales & leaseback) 과정 중 리테일로 떨어졌는데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홈플러스 거래 대상이 되는

3500개 거래업체 명단과 거래내역, 미지급내역 등을 확보해 정부에서 필요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밑자료를 준비해놓은 상태”라며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심리적 쏠림으로 인해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운영이 안 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장 주되게 볼 수밖에 없다”며 “홈플러스와 금융회사,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번 주 중 계획을 짜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홈플러스 전단체(ABSTB)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해당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홈플러스 회생신청 MBK, 운용보수 1조 챙겨

사모펀드 운용 ‘도덕적 해이’ 논란
MBK, 자구노력 없이 기습회생 신청
직·간접 고용 3만명, 1만여개 납품사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 피해 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데 활용한 펀드 운용으로 1조원 수준의 성과 보수(캐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3호 블라인드펀드에서 3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이는 인수금융(차입금)과 홈플러스의 기존 부채를 포함한 전체 인수 비용 7조2000억원 중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호 펀드는 홈플러스 외에도 오렌지 라이프(옛 ING생명), 두산공작기계, 네파, 대성산업가스, 일본의 아코디아 넥스트골프, 홍콩브로드밴드네트워크(HKBN) 등을 투자하는 데 사용됐다. 여러 투자처에서 선방하면서 3호 블라인드펀드의 내부수익률(IRR)은 28%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수익이나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 대상은 홈플러스와 네파로 추려지는데, 시장에서는 두 곳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3호 블라인드펀드의 전체 IRR이 최소 15%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용과 성과보수로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1325억원을 챙겼다. 운용보수는 2억5000만달러(한화 약 3630억원), 성과 보수는 5억3000만달러(7695억원) 정도다. 총합 1조1325억원 수준으로 11년간 연평균 1000억원을 넘기는 금액이다. 운용 보수는 펀드 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정기적으로 수령한다고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전체 성과 보수의 15~20%가량을 유보액으로 남겨두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조원 전후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영 실패로 인해 홈플러스의 핵심 점포들이 매각되고, 손실을 누적해 나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체 피해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체(ABSTB) 피해자 상거래채권 분류(인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가는 과정에서도 MBK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처럼 성과보수를 통해 운용사가 높은 수익을 얻는 방식은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흔한 구조이기도 하다.

홈플러스 사태에서는 MBK가 자구노력 없이 기습적인 기업회생을 신청해 직·간접 고용인원 3만명과 1만여개 납품사, 외부 임대매장점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커진 점이 주목되고 있다. MBK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한편,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지난 4일 기업회생정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주장해온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 4일 겹으로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기습적으로 회생정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애꿎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어서,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하은 기자

한양증권, 2800억 주상복합 본PF 완료

경기 광주 경안2지구 4개 동 규모

한양증권은 13일 경기 광주 경안2지구 주상복합 도시개발사업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2800억 원 규모로 한양증권이 금융주관사로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 광주 역동 28-3번지 일대 2만9725㎡ 부지에 주상복합 4개 동 규모로 673가구의 공동주택 및 216호실의 오피스텔, 1만여㎡ 규모의 판매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9년 본격화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계획 변

경 등으로 사업 지연을 겪었다.

지난해 시공사로 효성중공업, 금융주관사로 한양증권이 참여해 사업을 본격 재추진하여 본PF 완료에 이르렀다. 올 4월 착공 및 5월 분양,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교통 기반시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양증권은 올해 초 기업금융(IB) 역량 및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김기형 IB총괄대표를 영입했다.

/신하은 기자

한국거래소 성평등 Ring the Bell 행사

한국거래소 13일 서울사옥 KRX Market Square(종합홍보관)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유엔여성기구(UN Women), 국제금융공사(IFC)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 행사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하에 성평등 달성을 위한 민간 부문 협력과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울산 조선업 인력부족 해소 추진 우즈벡 현지 맞춤 기술인재 육성

고용부·울산시, 외국인력 직접 양성 훈련 통해 숙련도 높여 즉시 투입
올해 280명 울산 중소 조선사 배치
산업 맞춤 교육 모델, 제조업도 확대

조선업계 업·직종별 특화 인력 수요에 대응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 인재를 양성, 울산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3월부터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 소재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외국인력이 조선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이나 기능에 대해 습득한 후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선발 과정을 거친 인력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이뤄진다.

훈련 과정은 보은, 사상, 발판, 도장, 전기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 훈련 규모는 약 28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훈련 수료 시기에 맞춰 올해 7월~12월까지 입국할 예정이다.

훈련 비용과 운영 전반은 울산시가 지원하고, 훈련 내용은 지역 내 기업 수요를 직접 반영해 편성된다. 고용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는 훈련 수료자가 울산 소재 중소 조선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 알선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훈련 시설 이용, 훈련 기자재 반입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송출 절차를 신속 진행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향후 현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력모델을 비롯해 입국 전후에 걸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교육훈련을 체계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는 우선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수요가 있는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이다. 아울러 산업계 주도로 현장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참여할 기업을 모집토록하는 한편, 외국인력 우선 알선, 고용도 상향, 재입국 특례 등을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의 훈련 참여 유인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단체, 지역 기업 등 수요자가 참여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이 선발되고, 이후 숙련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선발 및 훈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나라살림 소폭 개선... 11.5조 흑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3월호
1월 긴 설연휴에 총지출 감소

올해 1월 말까지 나라살림이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영향으로 영업 일수가 줄면서 총지출이 많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1조5000억 원 규모 흑자를 나타냈다. 1월 누계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3번째 사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영업일 감소로 총지출이 감소한 데다 통상적으로 1월은 지난해 4분기의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흑자가 났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전년보다 3조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가 늘었기 때문에 흑자 폭은 큰 편"이라고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재정 상황

을 나타낸다.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국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3조2000억 원 줄어든 5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진도율(7.8%)은 2014년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설 연휴 등으로 영업일이 전년보다 나흘 적은 18일로 집계됐기 때문에 총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신속집행 노력으로 '일평균 총지출'을 집계해 봤을 때는 전년동기(2조5000억 원)대비 늘어난 2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영업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일 기준으로 평균 지출액은 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도 13조5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9000억 원 줄어든 66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은 4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7000억 원 늘었고 부가세는 8000억 원 줄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필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충남 당진 소재 저수지 방문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빙기를 맞아 농업용 저수지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송 장관은 13일 충남 당진 소재 농업용 저수지인 전대저수지를 방문해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의 점검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시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월17일~4월 2일 기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 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송미령(앞줄 왼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충남 당진을 찾아 저수지 안전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에 붕괴, 전도(시설물·공사현장) 및 산사태(사면·급경사지)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이 대상이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농식품부의 주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외 공사현장, 청사, 온실, 창고, 관리사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수원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도”

이산화탄소 90% 이상 포집 성공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초로 피에이에프씨(PAFC) 연료전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한수원은 지난 12일 전남 광양에서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시연회'를 개최하고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기존 연료전지 발전소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연료전지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지난 2023년 3월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탄소중립항만 전략에 부합하는 여수광양항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탄소포집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2023년 9월 한수원 주관으로 두산퓨얼셀(연료전지 설계 변경), 에어레인(분리막 포집 기술), 한국종합기술(설치공사)이 공동으로 참여해 시작됐고, 오는 5월까지 20개월 간 진행된다.

작년 12월 여수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부두에 연료전지(1대) 및 분리막 포집설비(1대)를 설치했고, 지난 1월엔 각 설비들의 시운전을 완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맞춤형 바우처 본격 가동

산업부-코트라
수출바우처 611억으로 확대

정부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응해 대체시장 발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바우처'도 4월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3일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래자'를 개최하고 올해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 대상 1대 1 수출바우처 멘토링, 관세 및 물류 애로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수출바우처(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으로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지원 규모는 611억원으로 전년(561억원) 대비 9% 확대하고, 지원 기업도 전년 1100여개사에서 올해 1300여개사로 늘린다. 이번에 1차로 700개사를 선정했으며 4월부터는 수출기업이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을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관세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을 가지고 수출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한다면 커지고 있는 대외 여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바우처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합심해 원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도 "수출 초보기업부터 성장 기업까지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도 ESG 필수 대응

환경산업기술원

온실가스 배출 기준 마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14일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스코프'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종으로, 온실가스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스코프1(기업이 소유 및 통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스코프2(기업이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스코프3(기업의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으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환경·사회·투

명경영(ESG)'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 요소이다.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과 각국 공시의 국제적인 표준이 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포함돼 있어 사전 준비가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 등은 기업들이 스코프3 배출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업종과 함께 업종별 안내서를 발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안내서는 지난해(2024년) 발간한 이차전지 업종 안내서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Gallery 315 개관기념 초대전

2025 **3.6** (목)
— **3.17** (일)

An Invitational Exhibition 

김수영, 신미혜, 홍승일 3人展

AN OPENING RECEPTION

2025. 3. 8(토) 오후 3시, 갤러리315, 갤러리아람

관람시간 | 11:00~19:00(전시 마지막 날 12:00 마감/매주 월요일 휴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문의 | 02.6743.3370

강남 테헤란로, 규제 철폐로 초고층 건물 건립 가능해진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 도입 용적률 최대 1800%, 높이제한 없어

서울 강남의 중심인 테헤란로 일대에 별도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 1800%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으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 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로,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GTX-A·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이후, 이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됐으며,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의 대표 도심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이에 따라 강남의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명동·상암동·여의도 이어 4번째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도입...용적률 최대 1800%까지

시는 테헤란로의 대규모 개발을 유도

하기 위해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은 최대 1800%까지 허용되고, 별도 높이 제한도 받지 않는 등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를

과감히 벗게 된다.

아울러,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또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설정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기존 높이계획 개선...신축 어려운 노후건축물 대상 리모델링

높이계획에 대해서는 조건별로 상이하고 복잡했던 기존 계획을 개선했다. 시는 도심 격상 등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했다.

신축이 어려운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활성화 전략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지자체 최초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건설공사 전단계, 3차원 모델 반영 각 단계별 정보 통합적 관리 기술 2030년까지 모든 공사에 적용 목표

건설산업이 최근 고령화로 인한 기술 인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 공사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과 품질확보 한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13일 서울형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설계 기준 시행, 신규 공공시설 발주시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서울형 공공인프라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 확립,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관리 체계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BIM이란 계획·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 등 건설공사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모델에 반영해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 시는 2030년까지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시가 신규 발주하는 대형공사인 터키 등 기술형 입찰공사·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BIM을 적용하는 방안을 3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기술형 입찰공사·민간투자사업의 일 반공사는 민간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은 2027년부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은 2029년부터 적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의무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도 BIM 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적정대가를 반영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효율적 적용을 위

해 올해 상반기 중 BIM 설계기준인 '서울형 BIM 적용 지침(안)'도 제작해 배포한다.

디지털 정보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올해 별도 용역을 통해 'BIM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BIM을 적용한 건설공사에 대한 디지털 자료를 축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규 발주 대형공사 외에도 기존 공공인프라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에도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혁신기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 과감한 투자와 시도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적정대가 반영을 통해 업계 부담은 최소화하고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모니터링,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중앙대 총장단,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

학업, 취업 등 이야기 나누며 소통

중앙대학교 총장단이 재학생들과 특별한 '천원의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13일 중앙대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에서 12일 총장단이 학생들과 직접 대면해 학업, 취업, 캠퍼스 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규 총장을 비롯해 박광용 교학부총장, 이찬규 행정부총장, 임신재 교무처장, 최재오 대외협력처장, 이장한 학생처장, 박기석 총무처장, 김동완 생활관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재학생 3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대가 진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뽕)'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앙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3월~11월까지 학기 중 매일 5000원 상당의 식사 150식을 1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중앙대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천



중앙대가 12일 '천원의 아침밥(뽕)' 사업일 일환으로 총장단과 학생들이 직접 대면해 학업, 취업, 캠퍼스 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앙대

원의 아침뽕' 사업을 추가 운영하며, 매일 빵과 커피로 구성된 5000원 상당의 세트 메뉴 200식을 1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뽕)'은 중앙대 서울캠퍼스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올해 천원의 아침뽕은 총 1만 6200식, 아침뽕은 총 1만 5000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중앙대는 지난 2023년 '천원의 아침뽕' 사업에 참여한 144개 대학 중 최우수 수상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가구 소득별 사교육비 지출 7배 격차

'유아사교육비 시험 조사' 첫 실시 6세 미만 영유아 47.6%, 사교육 받아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 약 2명 중 1명은 사교육을 받고, 사교육 참여 아동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8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평균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액은 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의 7배에 달해, 가구 소득 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7~9월 3개월간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시험조사를 한 결과, 지출 총액이 81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 중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참여유아 기준 일주일 당 평균 5.6시간을 사교육에 참여하면서 월평균 33만2000원을 지출

했다.

정부는 부모 1만 3241명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했다.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 공식 통계가 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으로, 2세 이하(80만 1000명) 858억원 선이었던 사교육비는 ▲3세(27만 9000명) 1325억원 ▲4세(30만 9000명) 2452억원에 이어 5세에 3519억원으로 훌쩍 올라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2세 이하 24.6%에서 ▲3세 50.3% ▲4세 68.9% ▲5세 81.2%로 높아졌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유아를 기준으로 하면 15만 8000원이다. 참

여 유아만 따로 보면 33만 2000원이다.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는 예체능은 ▲취미·교양(12만 7000원) ▲체육(12만 7000원) ▲음악(12만 2000원)이다. 일반 과목은 ▲영어(41만 4000원) ▲사회·과학(7만 9000원) ▲논술 등(7만 5000원) 순이다.

특히, 3시간 이상 학원 유형 중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은 154만 5000원에 달했다.

부모 경제적 여유는 사교육 투자로 이어지며 '부의 대물림'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2000원으로,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사교육비(4만 8000원)의 6.7배에 달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62.4%인 반면, 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9.5%에 그쳤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전달식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금도 전달 "NH농협과 안정·효율적으로 운용"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4일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NH농협은행과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및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전달식'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해 정현범 농협은행 서울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전달받은 금액은 교육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37억 5000만원과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약 27억 9170만원을 합해 총 65억 4170만원이다.

교육금고 협력사업비는 지난해 교육금고 약정체결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37억 5000만원씩 총 150억원이다.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금은 매년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등이 사용한 서울교육사랑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적립금을 다음연도 2월에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약 27억 9170만원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전체 직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덕분에 교육재정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NH농협은행과 더욱 협력해 교육금고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홈플러스 세일기한 연장, 정산금 지급 '유동성 확보' 전략?

‘홈플러스 이즈 백’ 26일까지 연장
패션 70%↓ ‘몰빵데이’도 진행

홈플러스 “세일행사 종료 이후
인기상품 총망라 앵콜행사 진행
현금확보 목적 연장한것 아니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세일 기간을 연장하며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회생 절차 중 협력업체 정산대금 지급 등을 위해 현금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3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창립 기념 단독 세일 행사인 ‘홈플러스 이즈 백’을 이달 26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해당 행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홈플러스가 열흘 더 연장한 것이다. 여기에 홈플러스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주요 패션 브랜드를 최대 70% 할인하는 ‘몰빵데이 시즌1’ 행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지난 11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신청 직후부터 지금까지 양배추 할인 행사를 비롯해, 화이트데이를 맞아 디저트 판촉 행사까지 이어가며 할인 행사를 지속해 왔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현금 확보를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활용해 고객 유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 조기 변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용 현금 잔고보다 갚아야 할 대금

이 더 많으니 할인 행사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일시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을 재개했다. 지난 7일 법원은 홈플러스의 첫 번째 조기 변제 신청을 허가해, 홈플러스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상거래 대금 채권 3457억원을 변제할 것을 결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6일 기준 가용 현금 잔고는 3090억원이고, 3월 한 달 동안 영업 활동을 통해 유입될 순현금이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 가용 자금이 6000억원을 초과한다”며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계획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3월 한 달간 영업을 통해 총 3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홈플러스의 세일 행사 연장 행보가 유동성 현

금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홈플러스는 이러한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2023년 창립 기념 행사인 ‘홈플러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행사가 종료되면 고객 반응이 좋았던 상품과 시즌 상품을 총망라해 앵콜 행사를 진행해 왔다”며 “현금 확보를 목적으로 갑자기 행사를 연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선 데 달친 격 홈플러스 브랜드 모델인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이 벌어지면서, 홈플러스의 경영 환경에 또 다른 난관이 생긴 모양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매출 상승에 브랜드 광고 모델이었던 배우 김수현이 큰 몫을 한 걸로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사생활 논란까지 터지면 홈플러스 상황이 더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신세계백, 명품·럭셔리 키우고 식음료 강화

본점 신관 2500평 12년만에 리뉴얼
2층 버버리·발렌시아가 등 매장 확장
3층에 명품 의류브랜드 20여개 입점
13·14층에 식당가 ‘서관면옥’ 등 유치

신세계백화점이 12년 만에 본점 신관을 명품 브랜드와 식음료 부문을 강화한 최대 규모 공간으로 재단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에 포함되는 영업 면적은 총 2500평으로, 신세계 본점 신관 오픈 이래 최대 규모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공간 개편을 통해 신관 2층의 명품 및 럭셔리 주얼리매장을 확대하고, 3층에는 해외 디자이너 의류 브랜드를 새롭게 유치했다.

특히, 신관 2층에는 버버리, 발렌시아가, 브루넬로 쿠치넬리 등 10여 개의 명품 브랜드가 기존보다 매장 규모를 약 20% 확장하고, 가방·지갑류뿐만 아니라 의류·액세서리까지 상품군을 확대했다. 이탈리아 주얼리 브랜드 포벨

라토와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 메사카 등 명품 주얼리 브랜드 공간 역시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신관 3층에는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등 주요 패션 도시를 기반으로 한 해외 명품 의류 브랜드 20여 개가 새롭게 입점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 르메르 ▲영국 디자이너 브랜드 에르메스 ▲벨기에 디자이너 브랜드 드리스 반 노튼 등이 포함됐다.

본점 식당가도 새롭게 단장해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기존 본관 5층에 있던 식당가를 신관 13층과 14층으로 옮겨 격식을 갖춘 비즈니스 미팅은 물론, 편안한 가족 식사에도 적합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새로운 식음료 공간에는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광화문 국밥’과 수년간 블루리본을 획득한 ‘서관면옥’이 들어선다. 또, 초밥 전문점 ‘김수사’도 새롭게 문을 연다. 최근 다변화하는 고객 취향

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전통 있는 노포와 트렌디한 식음료 매장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는 게 신세계백화점 측 설명이다.

우수 고객을 위한 공간도 새롭게 마련됐다. 신세계백화점은 신관 7층에 블랙다이아몬드 이상 등급의 우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라운지를 신설하고, 기존 라운지 공간은 전면 재단장해 새롭게 선보인다. 아울러 라운지 좌석을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별 식사 공간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신관이 명품과 럭셔리 주얼리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맛집을 대거 유치하는 등 새롭게 변신했다”며 “향후에도 독보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롯데마트, 40여종 ‘공구하트’… 물가 잡는다

오뚜기 식용유·해태 고향만두 등 준비

롯데마트가 물가잡기 일환으로 단독 기획 브랜드 ‘공구하트’ 상품 40여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공구하트’는 롯데마트가 자사 상품 조달 역량을 활용해 파트너사와 단독으로 기획한 상품이다.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물량을 결정해 한정 수량으로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 ‘공구하트 오뚜기 식용유(1.5L)’, ‘공구하트 해태 고향만두(320g*3)’, ‘공구하트 하림 용가리 치킨 증량기획(750g)’ 등이 마련됐다.

특히, ‘해태 고향만두’의 경우 기존 판매한 상품의 용량과 동일하지만 매입량을 50% 이상 늘려 단위 가격을 약 20% 낮췄고, ‘하림 용가리 치킨’은 기존 상품과 동일한 가격이지만 용량을 70%가량 늘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롯데마트·슈퍼신은정상품전략팀장



공구하트 상품을 홍보하는 롯데마트·슈퍼 MD (상품기획자)들의 모습. /롯데마트

은 “고물가 시기가 지속될수록 가성비 메리트가 구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며 “공구하트 상품은 단위 가격을 낮추거나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통해 가성비 장점을 극대화하는 상품인 만큼 앞으로도 공구하트 상품을 지속 출시해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KGC인삼공사, 국내외 각자대표체제 도입

임왕섭 대표-국내, 안빈 대표-해외 총괄

KGC인삼공사는 1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국내사업 및 해외사업 각자대표체제 도입을 통해 각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한다고 밝혔다.

신임 임왕섭 대표는 KGC인삼공사 국내사업을 총괄하고, 안빈 대표는 해외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KGC인삼공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K-건기식’을 대표하는 정관장 브랜드 자산(Brand Equity) 강화와 마케팅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확대 및 수익성 증대에 집중하기 위해 각자대표 체제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임왕섭 대표는 KT&G에서 전자담배 ‘틸’에 대한 체계적인 브랜드링과 변화·혁



임왕섭
국내사업 총괄 대표



안빈
해외사업 총괄 대표

신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등 플랫폼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패스트 팔로워’에서 ‘패스트 무버’로 전환한 브랜드와 마케팅 전문가이다.

안빈 대표는 국가별 맞춤형 제품 개발과 채널 확장으로 2024년 해외사업의 매출 비중을 증가시키는 등 글로벌 종합건강기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hy ‘월 작약’ 열흘만에 100만개 판매

hy가 3일 선보인 ‘월 작약’이 열흘만에 판매량 100만개를 달성했다. hy 기술향을 집약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과 섭취 편의성을 갖춰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신제품 월 작약은 국내 최초 위(胃) 건강 이증제형이다. 정제와 액상에 각기 다른 개별인정형 소재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뚜껑에 담긴 정제는 ‘작약 추출물·복합물’로 작약뿌리와 구아신·복합 꽃 추출물을 섞어 만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위 건강 원료로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유의적인 개선을 확인했다. 정제 2개로 1일 섭취 권장량 700mg을 100% 채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인절미 팔빙수맛 빼빼로’ 국내외 동시 론칭

롯데웰푸드, 美·中 등 9개국 판매

롯데웰푸드는 1983년 빼빼로 브랜드 출시 이래 최초로 신규 플레이버(flavor)를 국내외에 동시 론칭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 ‘인절미 팔빙수맛 빼빼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브라질,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9개국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한식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빼빼로에 ‘K-디저트’의 맛을 담아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는 전략이다.

인절미 팔빙수맛 빼빼로는 대표 K-디저트인 팔빙수와 인절미의 맛을 초콜릿과 쿠키로 재해석한 이색 제품이다. 출시 전 실시한 외국인 대상 소비자 조

사에 따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디저트로 팔빙수와 인절미를 떠올리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선호도 역시 높았다. 롯데웰푸드는 한국의 젊은 소비자들도 일명 ‘할매니얼’ 등 전통을 재해석하는 트렌드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국내외 소비자 입맛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인절미 팔빙수맛 빼빼로 출시를 결정했다.

이번 신제품은 스틱과자에 인절미맛 초콜릿을 입히고 그 위에 팔빙수 쿠키 분대를 더한 형태다. 빼빼로 본연의 달콤한 맛에 고소한 콩고물의 풍미를 담은 초콜릿과 바삭한 식감을 주는 쿠키가 더해져 외국인 소비자에게는 이색적인 맛과 먹는 재미를, 한국인에게는 친숙하면서도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홈케어도 AI 시대’... K뷰티, 디바이스 시장 경쟁 본격화

아모레퍼시픽, ‘테라피 3S’ 공개
달바, ‘올세라 더블 샷’ 홈뷰티 진출
에이피알, ‘부스터 프로’ 흥행

국내 뷰티 기업들이 뷰티테크에 인공지능을 결합하거나 새로운 스킨케어법을 개발하는 등 ‘뷰티 디바이스’ 경쟁에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13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대표 뷰티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뷰티 기기 개발에 속도를 낸다.

아모레퍼시픽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이크온’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뷰티 제품을 연구하고 있다. 올해 신제품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기기에는 인공지능 피부 분석 및 관리 솔루션 등 전용 서비스도 적용된다.

기존 브랜드 대표 제품인 ‘스킨 라이트 테라피 III’에는 전기근육자극(EMS) 기능과 갈바닉 기능이 집약됐다. 아모레퍼시픽이 4년간 개발한 트리플 스킨 시너지 기술은 스킨케어 흡수를 돕고 피부 톤, 탄력 등에 효능을 갖췄다. 빛·열·이온·운동 에너지 등 4가지 물리학적 요소를 활용해 종합적인 피부 관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자회사 퍼시픽테크를



‘메이크온’의 브랜드 대표 제품인 ‘스킨 라이트 테라피 III’

/아모레퍼시픽

운영해 왔다. 아모레퍼시픽은 퍼시픽테크를 통해 미용기기 유통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퍼시픽테크는 국내 여러 미용기기 제조업체와 협력을 확장하고 있다. 퍼시픽테크 매출은 지난해 3분기 기준, 2900만원 수준이다. 지난 2023년 매출 1000만원에서 190% 늘었다.

차세대 K뷰티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디브랜드 달바도 뷰티 시장에 신제품을 내놓으며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달바는 지난해 연간 매출 3090억원, 영업이익 598억원 등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달바의 올해 목표 매출은 4400억원이며 현재 코스피 시장 진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바는 뷰티 기기 신사업을 성장기반으로 확보했다. 달바는 지난해 9월 말 ‘시그니처 올세라 더블 샷’을 처음 공개했다.

이 신제품은 국내 최초 두 개의 헤드를 하나의 기기에 설계한 올인원 형태의 기기다. 더블 샷으로 사용 시간은 두 배로 줄이고, 관리 효과도 두 배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달바는 특히 기술로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집에서 쉽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그니처 올세라

더블 샷은 네이버 라이브 마켓에서 출시 3일 만에 약 5억원 매출을 올리는 등 소비자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다.

뷰티 디바이스로 입지를 확고히 다진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고도화뿐 아니라 화장품 병용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적 기준,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매출은 각각 3000억원을 넘기며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 에이피알은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판매 전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이피알은 핵심 제품인 ‘부스터 프로’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후속 제품인 ‘올트라톤 40.68’, ‘하이 포커스 샷’, ‘부스터 프로 미니’ 등의 신규 판매에 나섰다. 뷰티 디바이스를 통해 에이피알 인지도가 제고된 만큼, 회사는 자사 화장품에 대한 소비로 매출 개선이 확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진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에이피알 측은 “뷰티테크는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다 보니, 각국의 규제도 까다롭고 시장 상황도 다르다”며 “현지 맞춤형 화장품, 각국 트렌드에 발맞춘 스킨케어법 등으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성분명: 우스 테키누맙)’

/셀트리온

셀트리온

美 직접판매 강화나서 ‘스테키마’ 시장 선점

셀트리온은 지난 12일 미국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발매를 본격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셀트리온은 스테키마를 오리지널 제품의 도매 가격에서 85% 할인된 ‘낮은 도매 가격’으로 출시했다.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 리베이트 협상력이 낮은 중소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 등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이다. 셀트리온은 미국 법인을 통해 스테키마 직접판매 영업도 펼친다. 기존 짐펜트라, 유플라이마 등을 판매하며 쌓아온 유통망을 활용해 처방 전문의, 환우회 등의 의료 현장 관계자들을 공략한다.

특히 환자한테 최적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내성이 생길 때 치료제 변경을 고민해야 하는 의사 입장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제품군은 처방 선택권과 환자에 대한 치료 지속성을 동시에 보장해 준다.

/이청하 기자

美 C2N 혈액진단 기술에 150억 투입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
C2N, R&D·수탁 리딩 기업성장 기대

삼성물산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벤처투자와 함께 설립한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미국 ‘C2N 다이그노스틱스(이하 C2N)’에 1000만 달러(145억원)를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C2N는 혈액내 매우 적게 존재하는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이다.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를 개발하였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다양한 중추신경계 질환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삼성물산은 13일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미국 C2N 다이그노스틱스에 1000만 달러(약 145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입증한 바 있다. 바이오마커란 질병의 진단과 약물의 효능 측정에 사용되는 체내 유전자, 단백질, 세포 등을 뜻한다.

C2N가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혈액검사는 기존 방식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더 안전하게 아밀로이드 베타 등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여러 단백질의

양을 정밀 측정하는 것이 강점이다.

그동안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지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외에도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 검사 또는 뇌척수액 검사가 사용되어 왔는데 혈액검사가 이중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성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C2N의 혈액검사를 통해 향후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제를 적시에 처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C2N는 자사의 알츠하이머병 혈액검사 서비스를 올해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삼성물산라이프 사이언스사업 담당 김재우 부사장은 “C2N는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지원·수탁 및 관련 서비스 분야의 리딩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 회사”라며 “삼성물산은 이번 펀드투자를 통해 해당분야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C2N 대표 조엘 브라운슈타인은 “C2N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단백질 분석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기술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C2N의 서비스를 미국 전역뿐 아니라 해외에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공동으로 24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벤처 투자 펀드로 삼성벤처투자가 운용 중이다. ‘미래 바이오 핵심 기술 육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사 아라리스 바이오테크와 에임드 바이오, 생성형 머신러닝에 기반한 단백질 바이오신약 개발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등에 투자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오스템임플란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안전관리 체계 확립 노력 인정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2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중앙연구소에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수여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임플란트연구소 ‘피로실험실’ ▲스캐너연구소 ‘3D프린터실’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했다. 덴탈 업계에

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처음으로 인증 받았다.

해당 인증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안전환경 활동 수준,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에 걸친 엄격한 심사와 평가가 반영된다.

이와 관련 오스템임플란트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규정 및 표준 제정을 비롯해 연구실 안전관리 운영 원칙을 구축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비상 상황에도 적극 대응한다. 연구소 인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훈련, 전사 임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20개 연구소와 160여 개 연구실 전반에서 관리 수준을 향상해 보다 안전한 연구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트윈타워 연구동 로비에서 윤지훈 임플란트연구소장(사진 왼쪽에서부터 세번째)과 김진태 스캐너연구소장(사진 왼쪽에서부터 네번째)을 비롯한 연구소 관계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및 명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

세포주 개발 속도 낸다

美 아시모브와 CDMO 협력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본사를 둔 아시모브(A SIMOV)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아시모브의 차세대 세포주 개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세포주 개발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CDMO 역량과 트랙 레코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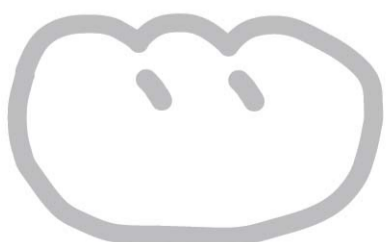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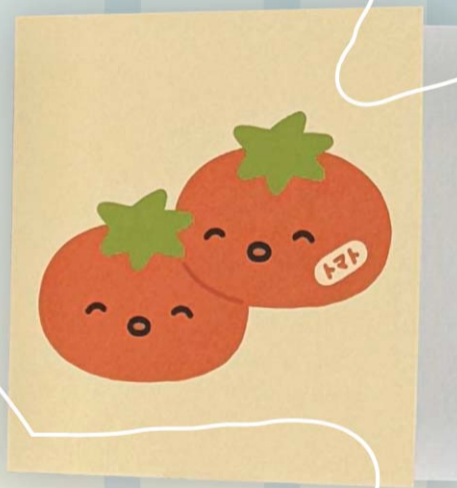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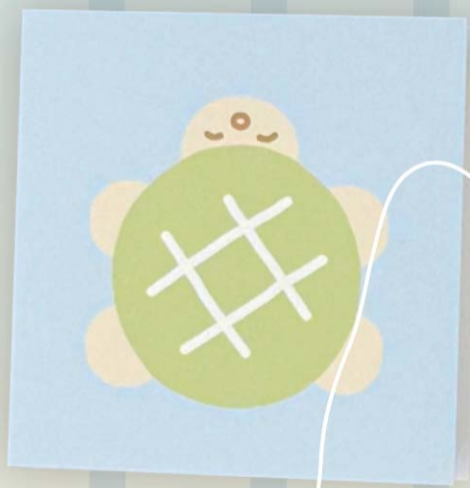
아시모브는 독자적인 세포주 개발 플랫폼 ‘CHO 엣지(Edge)’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모브의 ‘CHO Edge’ 시스템은, CHO(Chinese Hamster Ovary·중국 햄스터 난소) 세포의 유전자 설계 및 최적화를 통해 항체 및 단백질 치료제 생산을 가속화하는 기술이다. 특히, 작업 과정 자동화 및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적용해 높은 생산성과 균일성을 갖춘 맞춤형 세포주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세경 기자

FOLDED

SET

CARD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LG전자, Z세대 점점 확대... “새로운 고객경험 발굴”

‘LG크루’ 5기 출범... 특강·멘토링 ‘그라운드 220’ 등 프로그램 운영

LG전자가 미래 고객인 Z세대와 함께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LG크루’를 운영한다.

LG전자는 12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대학생 고객경험 자문단 ‘LG크루’ 5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선발된 대학생 16명은 4개 팀으로 나뉘어 6개월간 LG전자 연구진과 함께 Z세대 맞춤형 제품·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특강과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LG크루는 ▲Z세대 맞춤형



LG전자는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크루’ 발대식을 개최했다. /LG전자

구독 서비스 ▲신개념 냉장고 ▲브랜드 경험 공간 홍보방안을 제안한바 있다. 일부 참가자는 LG전자에 입사해 Z세대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LG전자는 LG크루 외에도 Z세대와

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그라운드 220’, 온라인 커뮤니티 ‘재미’, ‘라이프집’ 운영 및 ESG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철배 LG전자 CX센터 부사장은

“LG크루와 함께 Z세대 관점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재해석하며 새로운 고객경험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에쓰오일, 다문화 가정 정착·자립 지원

이주여성인권센터 5000만원 후원

에쓰오일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한다.

에쓰오일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을 돕기 위한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난 2001년에 설립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을 위한 상담·교육·심리치료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과 자녀가 머무는 보호시설(쉼터)을 운영하고 있다. 에쓰오일이 지원한 후원금은 쉼터를 퇴소하는 이주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주 여성들의 법률상담 및 사회 복귀를 돕는 이주 여성 출신 통·번역 전문 상담 활동가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에쓰오일은 다문화 가정의 인권 문



에쓰오일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광남 에쓰오일 부부장,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쓰오일

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열악했던 지난 2013년부터 후원을 시작해 총 6억6000만원을 기부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석권

‘집안일과의 작별展’ 등 5관왕

삼성전자가 ‘2025년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13일 삼성전자는 올해 33회를 맞은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5개의 수상작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집안일과의 작별展(전)’(옥외광고 영상 부문)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AI 가전이 집안일을 대체한다는 변화를 유틸드 있는 전

시로 풀어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 점과 고객들에게 ‘집안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AI 라이프’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자연스럽게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BESPOKE AI 냉장고의 비밀’(디지털 부문) ▲‘Voices of Galaxy’(디지털) ▲‘잘하고 싶어서’(인쇄) ▲‘GO ULTRA Challenge’(디지털) 등으로도 수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엄호윤 기획상임이사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

부음

▲박연서 씨 별세, 이미화(천안시 홍보담당관)·이종철·이종진·이종분·이종숙·이영순 씨 모친상=13일 오전 0시 29분, 충북 진천

군 농협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15일. 043-533-8004

▲한강수 씨 별세, 한상홍·홍순·상지 씨 부친상, 백찬기(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 씨 장인상=13일 오전 9시, 참사랑장례식장(인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71) 특1호실, 발인 15일. 032-932-4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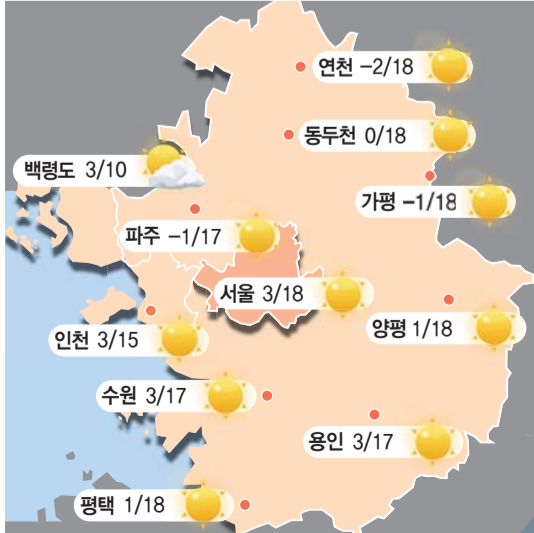
▲김이숙 씨 별세, 박경식(전남매일 지역사회복지회 부회장) 씨 모친상=13일, 순천의료원장례식장 2분향실, 발인 15일. 061-759-9182

오늘의 날씨

3월 14일 (금) 음력 : 2월 15일

수도권 날씨 3 ~ 18℃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롯데온, TOPS 운영... 300개사 집중 지원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20일까지 대상자 모집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2025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 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온은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패션·뷰티 분야의 소상공인 300개사를 집중 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기초 컨설팅 및 입점 지원이 제공되며, 이후 온라인 기획전 운영과 판촉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팝업스토어 운영을 지원한다는 게 롯데온 측 설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롯데온에서는 패션·뷰티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으로 모집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서류 평가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제주 상생브랜드 첫 상품 ‘제주계란’ 탄생

동반위, 제주산 계란 판로 확대

제주 상생브랜드 첫 상품인 ‘제주계란(사진)’이 탄생했다.

13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특성상진흥원, 대상이 힘을 모아 ‘제주계란’을 출시했다.

지난해 7월 동반위, 제주도, 제주통상진흥원, 대상은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주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상생브랜드 상품개발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제주계란’은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 Jeju Quality)을 획득한 제주산 계란의 판로 확대를 위해 종합식품기업 대상이 마케팅, 디자인, 유통 등을 담당하고, 상생브랜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상생협력 캐릭터인 ‘동이&반이’와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 마크를 포장디자인에 활용했다.

/김승호 기자 bada@



CJ올리브영-치병원, 여성 건강증진 맞손

CJ올리브영은 지난 12일 차바이옴플렉스에서 치병원을 운영하는 생광의료재단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상혁 치병원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진희 CJ올리브영 플랫폼사업총괄(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CJ올리브영



신한은행, ‘고객자문위원 발대식’ 개최

신한은행이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2025 신한은행 고객자문위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은 다양한 고객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장애인 및 외국인 자문단이 새롭게 모집됐다. /신한은행



KRC,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TF 출범

한국농어촌공사(KRC)가 12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KRC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TF)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가운데)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CJ도너스캠프 ‘문화동아리 신청하세요’

CJ도너스캠프가 ‘2025년 CJ도너스캠프 문화동아리’ 참가팀을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CJ도너스캠프 문화동아리 지원 분야는 영상 미디어, 음악, 공연, 요리 총 4개 부문이며 해당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만 12세~18세)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어드밴스프로(Advance-Pro)’ 과정이 신설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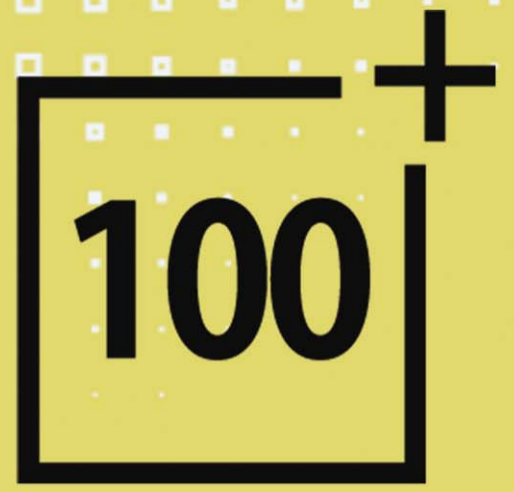
/신원선 기자 tree6834@

천재교육 ‘천재 T셀과 대회’ 개최

천재교육·천재교과서의 올인원 교수학습지원 서비스 T셀과(티셀과)가 ‘2025 천재 T셀과 수업 혁신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 공모 주제는 천재 AIDT와 지니아투터를 활용한 교실 수업 혁신 사례다. 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예선 접수가 진행되며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강연	14:50 ~ 15:25	염승환 LS증권 이사 :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15:25 ~ 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쳐보기
	16:00 ~ 16:35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 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집마련은 언제?...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 LS증권 이사
-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본부장
-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호지영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前 대신증권 WM추진부
- 前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당신이 몰랐던 부르고뉴... 그 다양함에 대해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佛 부르고뉴 와인

“부르고뉴를 두려워하지 말라.”

매년 전 세계 최고가 와인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게 바로 부르고뉴 와인이지만 사실 전체 부르고뉴 지역을 놓고 보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경매시장에 나오는 와인의 비중은 1%, 아니 0.1%도 되지 않는다. 제대로 들여다보면 가성비 좋은 와인이 더 많다. 그것도 레드 와인 이든 화이트 와인 이든 대체불가능한 부르고뉴의 좋은 품질은 그대로 갖고서다.

부르고뉴 와인 협회(BIVB)가 지난달 한국을 찾았다. 지난 2016년 이후 10여 년 만이다. 그 사이 부르고뉴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한국 와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부르고뉴 와인의 수입도 4배 안팎으로 급증했다. 이제 부르고뉴에서 한국은 와인 수출 물량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프랑수와 라베 부르고뉴 와인 협회장(오른쪽부터)과 장 프랑수와 보르데 부르고뉴 와인 협회의 사블리 와인 위원장이 건배를 제안하고 있다. /옵스코치 시즌

기준 15위, 금액 기준 12위의 국가다.

프랑수와 라베 (Francois Labet) 부르고뉴 와인 협회장은 “전설적인 와인들로 알려진 부르고뉴지만 대로가 아닌 셋길로 들어가 새로운 보석같은 와인을 발견할 것을 제안한다”며 “많은 빌라주(마을)급 아뵐라시옹(AOC·원산지 통제 명칭)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놀랄만큼 뛰어난 가성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르고뉴 아뵐라시옹은 모두 84개

다. 이 가운데 빌라주 아뵐라시옹은 44개다. 주브레-상베르팽 같은 유명 산지 말고도 몽파나나 오쎬-뒤레스, 픽상 등 오랜 역사와 좋은 품질의 아뵐라시옹도 많은 얘기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부르고뉴(Bourgogne)는 부르고뉴다. 미국식인 버건디(Burgundy)로 번역해 부르지는 않는다. 부르고뉴라는 명칭은 이 지역과 생산자들의 정체성 그 자체로 고유 명사다. 사람도 성(姓)은 다르게 바꾸지

않고 고유의 발음으로 불러주듯 부르고뉴도 그래야 한다.

부르고뉴는 어찌보면 단순하다. 품종도 레드 와인은 피노누아와 가메,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와 알리고떼 정도로 단출하다. 그런데 막상 와인은 놀랄 만큼 다양하다.

이인순와인랩의 이인순 원장은 “부르고뉴는 지형적으로 보면 남북으로 230km 가량 길게 뻗어있어 한 가지 품종으로 만들어도 지역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지닌 와인이 된다”며 “몇 안되는 품종으로 전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다양한 스타일이 나올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 같은 샤도네이 품종으로 만들었지만 부르고뉴 북쪽의 삐티 사블리 와인과 남쪽 끝에 위치한 생-베랑 와인은 확연히 달랐다.

‘삐티 사블리, 도멘 모니에’는 그간 접했던 사블리 와인보다 가볍고 경쾌했다. 청사과와 청메 느낌에 순수하고 맑다.

‘생-베랑, 비네롱 데 테르스크레트’는 더 따뜻한 기후를 그대로 반영하듯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의 향과 느낌으로 보다 화사했다.

윤효정 소믈리에에 “두 와인 모두 입안에서 효모 양금 속성과 미네랄에 따른 좋은 느낌으로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며 “보통 사블리 와인엔 꿀이라고 한 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생선이나 한식에선 잡채같은 기름진 음식과도 잘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소믈리에에는 지난 2023년 한국 소믈리에 대회 우승자다.

작년 한국 와인 시장이 역성장을 했지만 사블리 와인의 수입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초부터 11월 말까지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29% 급증한 320만 유로 안팎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 프랑수와 보르데 (Jean-Francois Bordet) 사블리 와인 위원장은 “사블리는 샤르도네라는 단일 품종을 사용해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만 생산하지만 단순함 뒤에는 복합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며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삐티 사블리로 시작할 수 있고, 좀 더 특별한 날에는 사블리 프리미에나 그랑크뤼를 찾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smahn1@metroseoul.com

문화 단신

롯데시네마, ‘플레이브 대쉬 인 시네마’ 싱어롱 상영회 진행

다양한 콘텐츠 경험의 무한 확장을 추구하는 롯데시네마가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의 쏫 콘텐츠 ‘플레이브 대쉬 인 시네마’ 싱어롱 상영회를 확정하며 데뷔 2주년을 축하하는 인사 영상을 추가 상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플레이브 대쉬 인 시네마는 예매 오픈 직후 폭발적인 팬들의 반응 속에 3만

명을 훌쩍 넘는 사전 예매율을 기록했으며 ‘미키 17’에 이어 실시간 예매율 2위를 차지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7분 12초 분량의 쏫 콘텐츠를 극장에서 상영한 실험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끌어오르는 흥을 참기 힘들었다는 팬들의 의견을 반영해 14일부터 16일까지 ‘싱어롱 상영회’를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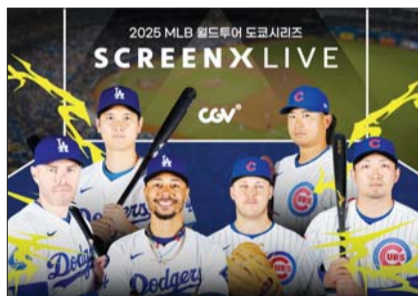


최하여 흥행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GV, MLB 도쿄시리즈 개막전 SCREENX로 생중계

CGV는 오는 18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5 MLB(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월드투어 도쿄시리즈 ‘LA 다저스 vs 시카고 컵스’ 경기를 SCREENX로 생중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MLB 경기를 좌, 우 벽면이 확장된 3면 SCREENX로 만날 수 있다. 경기에는 LA 다저스 소속의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프레디 프리먼, 무키 베츠, 시카고 컵스 소속의 스텝키 세이아, 이마나가 쇼타 등 슈퍼스타가 출몰한다. SCREENX는 CGV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론칭한 다면 특별 상영관으로 좌, 우 벽면까지 확장되는 파노라마 영상을 통해 스크린 프레임을 공간



전체로 확대해 넓은 시야각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엔씨소프트-텐센트, 내달 ‘블레이드&소울2’ 中 출시

엔씨소프트와 텐센트가 멀티플랫폼 MMORPG ‘블레이드&소울2’를 내달 3일 중국에 출시한다. 엔씨와 텐센트는 ‘블레이드&소울2’ 정식 서비스에 앞서 여러 차례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테스트에서 확인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중국 이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다수 적용했다. ▲조작 편의성

개선 ▲UI 편의성 개편 ▲모바일 최적화 등 현지화 작업도 진행했다. 불소2만의 차별점인 자유로운 직업 전환과 액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응 전투’, ‘스킬 콤보’ 등 여러 전투 요소를 강화했다. 이용자 부담을 낮추고 게임 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적용했다. 최상급 장비는 오직 게임 플레이를 통해



서만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획득한 모든 아이템은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주말은 책과 함께

“우리 사회에 ‘잉여’ 허락해야”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를 넘어 ‘갯성비(God+가성비)’란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극도의 능률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은 ‘잉여’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생산성과 효율 극대화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는 탓에 ‘남는 것’을 죄악시하며 심지어는 경멸한다.

‘김상욱의 과학공부’는 과학적 사고를 하는 물리학자가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를 인문학적으로 통찰한 결과를 다룬 책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잉여를 허(許)할 것을 촉구한다.

그는 언어와 인간 DNA에 담긴 잉여성을 설명하며, 우리 인간에게도 ‘여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지난 1970년대 뉴욕 지하철 포스터에 “if u cn rd ths, u cn gt a gd jb w hi pa!”라는 문장이 실린다. 간단한 영어 단어 몇 개로 의미 추론이 가능하다. “If you can read this, you can get a good job with high pay!”(이걸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고연봉의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철자의 절반을 빼더라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언어의 잉여성을 이해하게 된다.

책에 따르면, DNA는 잉여성의 종결자다. 인간 게놈 분석을 완료한 과학자들은 전체 유전자 가운데 의미 있는 유전자의 양이 너무 적다는 사실에 놀란다. 이후 이 정크 DNA가 재활용될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 지음/동아시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 시작한다. 생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NA에 엄청난 잉여성을 둔 자연이 진화 과정을 거치며 다시 이것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던 것.

저자는 “잉여는 말 그대로 ‘남는다’와 ‘필요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잉여인 것과 아닌 걸 나누려면 그 기준이 옳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영원불멸한 기준이 아니라면 오늘의 잉여가 내일의 필수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필수가 내일의 잉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책은 잉여를 판단하는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특허청 직원 아인슈타인의 잉여 연구가 상대론을, 고장 난 기계를 고치던 스티브 잡스의 잉여짓이 애플을 낳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336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



▲트럼프 ‘무역 전쟁’ 본격 시작...EU·캐나다 ‘맛볼’, 아시아는 ‘신중’
▲머스크 칼질에도 올해 2월 美 연방 지출 7% 증가 /사진 뉴시스

▲젤렌스키 “러시아 점령지, 러 영토로 인정 안 할 것”
▲트럼프, 성패트릭데이 백악관 방문한 아일랜드 총리에게도 “미국을 속여먹었다”

▲‘머스크 “업무 보고 안 하면 해고” 이메일 이라셔 파문
▲EU 등과 달리 멕시코·브라질은 美 철강관세에 보복 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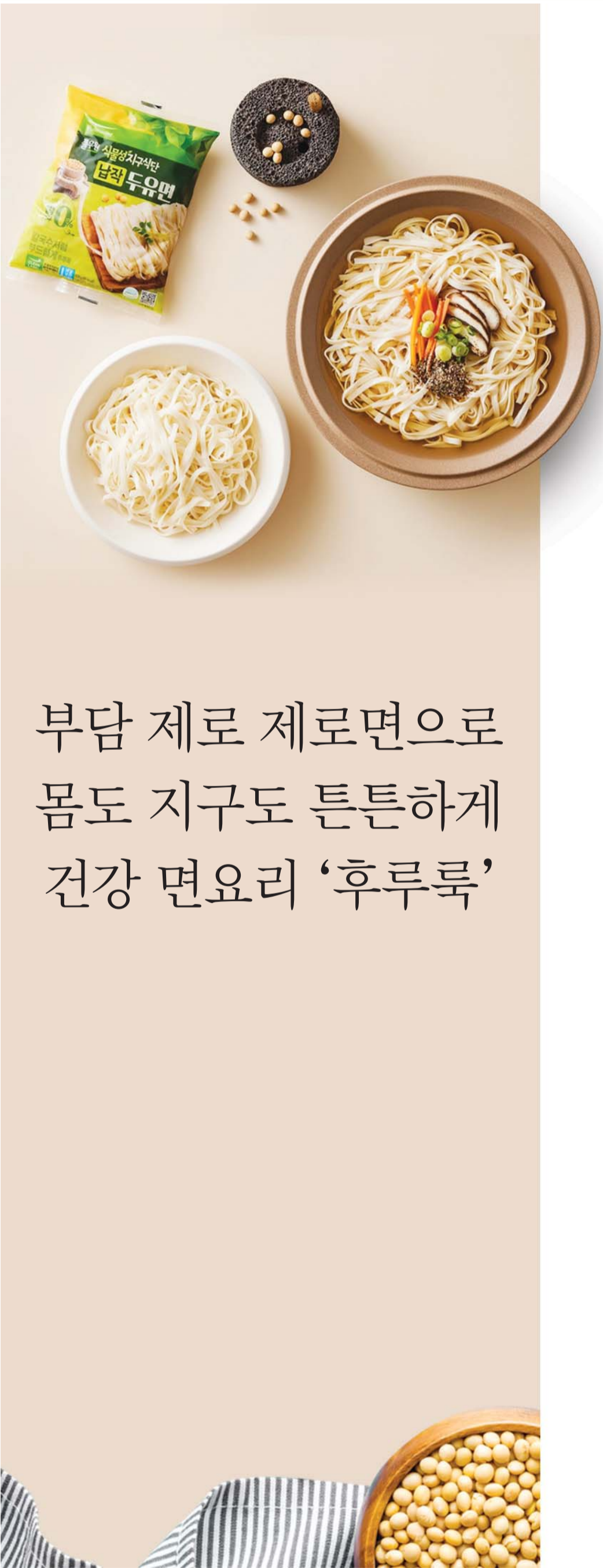


홈플러스
세일기한 연장
현금 확보 전략?
니



Life

K뷰티
디바이스 시장
경쟁 본격화
L2



부담 제로 제로면으로 몸도 지구도 튼튼하게 건강 면요리 '후루룩'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풀무원지구식단 '두유면'

2021년, 식물성 지향식품 선도기업으로 지속가능식품 브랜드 '지구식단' 론칭 밀가루 없는 식물성 대체면 인기 끌어 식물성 재료로 건강한 면요리 섭취 도와

풀무원의 '제로면' 라인업인 두유면, 두부면, 곤약면이 비건 트렌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최근 젊은층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중장년층 못지않은 수준으로 확대됐다. 특히 환경과 윤리를 추구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비건'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식물성 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가 지난 2017년부터 연평균 15.7% 성장해 오는 2026년 2억 1600만달러(약 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풀무원은 지난 2021년 식물성 지향 식품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며 '지속가능 식생활'에 주목했다. 풀무원이 제안하는 지속가능 식생활은 신선한 채소와 포화지방이 적은 단백질, 거친 통곡식 위주의 식사를 통해 '몸과 지구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식습관이다.

이에 이듬해 지속가능식품 전문 브랜드 '풀무원지구식단'을 론칭했고, 론칭 1년간 매출 약 430억원을 달성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그 중에서도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는 풀무원지구식단의 제로면 라인업은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식물성 대체면 제품으로 건강과 몸 관리를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찍이 풀무원은 2020년 두부면을 출시하면서 보다 건강하게 면요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당시 곤약면 외에는 다른 대체면이 없었던 터라 두부면 출시를 계기로 건강을 고려한 면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두부면은 밀가루면 대비 단백질 함량이 많아 다이어트에 관심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식감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풀무원은 식감을 보완하기 위해 두유면을 개발했다.

두유면은 두유액이 70%를 차지하며, 실제로 면과 식감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제품을 익히거나 먹기 전 헹구지 않아도 되기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도 인기 제품으로 자리 잡은 두유면을 중심으로 제로면 제품군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두유면은 탄수화물의 불필요한 섭취를 줄이면서도 영양 균형을 간편하게 갖출 수 있다. 85kcal로 칼로리 부담 없이 고식이섬유(6g), 고칼슘(342mg)까지 챙겼고, 면을 헹구거나 삶는 필요가 전혀 없어 포장재를 뜯고 충전수만 버리면 매우 빠른 시간에 면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

두유면은 출시 약 1년6개월 만에 누적 판매



얇은 두유면(위)과 납작 두유면

량 100만개를 넘어섰다. 국내 최고 식품을 가리는 '2023대한민국푸드엔포드테크대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국내 소비자 사이에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두유면의 성장 잠재력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유면의 소비자 수요가 공급을 훨씬 웃돌았다. 이에 풀무원은 두유면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협력사에서 생산했던 두유면을 자사

두부 생산 거점 중 하나인 의령두부 공장으로 이관했다.

두유면 생산 공장 이관을 완료하면서 생산량이 4배가량 늘어났으며, 제품 품질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더불어 면의 굵기, 형태, 종류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채널 특성에 맞는 두유면 벌크 제품도 새롭게 출시하여 급식이나 외식 채널까지 공략할 계획이다.

두부면 식감 보완 위해 '두유면' 개발 면과 식감 유사, 간편한 조리방법까지 소비자 수요 늘어, 자사공장으로 이관 생산량 4배 늘어... 제품 다양성 기대도

풀무원은 오는 2026년까지 지속가능식품의 매출 비중을 전체 매출 대비 5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해외법인에서 식물성 지향 브랜드를 론칭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풀무원의 식물성 대체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동물성 식품과 다르지 않은 '식감'을 꼽았다. 식품업계에서는 대체식품의 이질적인 맛과 식감이 소비자의 심리적 장벽을 높이는 이유라고 꼽는다.

풀무원은 소비자의 거부감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식품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추며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풀무원 측은 "지난해 두유면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자사 공장 이관 후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 있어 매출도 지난해 대비 3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건강한 식생활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두유면 등 '제로면'을 중심으로 풀무원지구식단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한국 남자배구 간판 문성민, 은퇴 선언...16년 선수생활 마무리 /사진 뉴스시스
▲KBO 퓨처스리그 14일 개막...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 시범 도입

▲유로파 역전 노리는 토트넘 감독 "손흥민 활약 기대한다"
▲국립현대무용단 '인잇: 보이지 않는 것' 21~23일 공연

▲"김수현·김새론, 결혼 얘기까지 했다" 故김새론 이모 폭로
▲김수현 또 김새론 부정 "루머 대응 명백한 근거 있다"